

2025년 1학기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연구방법과 실습 자료집

담당 교수: 전의령

목차

1조: N수생들의 심층적 경험 연구를 통한 N수의 사회적 영향 분석.....	1
2조: 연화정 도서관과 한옥마을 도서관의 공간 정체성 연구.....	11
3조: 공유형 문화공간 형성에 따른 지역 활성화: 전주 경원동# 사례를 중심으로.....	22
4조: 한옥마을 젠트리피케이션과 서학동 예술마을의 형성.....	33
5조: 자만 벽화마을 주민들의 삶과 도시 재생.....	42

N수생들의 심층적 경험 연구를 통한 N수의 사회적 영향 분석

1조: 정재영, 김민서, 전민주

1. 서론

지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접수자 중 17만 8천여명의 N수생(재수 이상 의 수능 시험 응시자)이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수능 접수자의 34.7%로 지난해 N수생 비율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치이다. 대학 입학생 중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신입생 중 N수생 비율이 28.5%에 달하며 수능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 4년제 일반대학의 신입생 중 N수생의 비율이 37.4%로 집계되어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24학년도 의대 정시 등록자 중 N수생이 평균 80% 이상을 차지했고 울산대 의대의 경우 정시 등록자 전원이 N수생이었다. 이처럼 수능을 응시하는 N수생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N수를 하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했고, N수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도 그 어느때보다 가까워서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왜 그들이 N수를 해야만 했는지, N수를 하면서 느낀 압박과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겨냈는지, N수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따라서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인터뷰와 입시 커뮤니티를 이용한 자료 조사를 통해 N수를 결정하게 된 동기와 N수 과정, 그 속에서 N수생들이 느끼는 압박과 고통, 그리고 삶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N수 결정과 과정, 결과에 N수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개인이 N수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N수가 개인의 삶에,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재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재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고소득·고학력 가정일수록 자녀가 재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김양분, 남궁지영, 김난옥, 2014).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수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을 부모의 학력, 소득, 교육적 지원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양분, 남궁지영, 김난옥(2014)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단위 높을수록, 재수를 선택할 확률이 1.338배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재수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자원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재수가 더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 또한 부모의 고학력·고소득 여부가 재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지원 방식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기존 연구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 정도는 재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학업적 지지가 재수 결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면담과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는 재수 결정 요인과 성과를 단편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있어, 재수생의 경험적·정서적 의미 등 심층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양적 연구를 참고하면서, 재수라는 현상을 보다 개인의 경험과 정서에 기반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재수 경험자들과의 면담과 입시 커뮤니티에 게시된 N수생들의 경험담을 분석함으로써, 재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입시제도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현상

20세기 후반 대두된 시장 중심 정치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차등적인 보상을 받게 하는 능력주의와 결합하였고, 이 결합을 공고히 하는데 대학의 입시제도가 공정한 경쟁의 도구로써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국민과 학생들은 국가에서 마련한 여러 입시제도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한 지표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균등한 경쟁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교육의 자율적 체제 안에서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투자를 은폐한 채, 능력주의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세습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우(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능을 통해 36%의 상위 소득 출신 학생들은 일명 ‘SKY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했지만, 하위 소득 계층 학생들의 경우 단 9%만 명문대에 입학하였으며, 표준화된 시험만을 강조한다면 대학 시스템의 경직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적 계층이 가진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자본은 학생들의 비능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입시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우(2021)는 사회적 계층의 대물림의 요인으로서 ‘유리바닥’을 제시하였는데 ‘유리 바닥’이란 상위 소득층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하락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인턴십 기회 제공, 대학원 진학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유리바닥은 하위 소득층 학생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낮추고, 상위 계층의 하락을 막는 장치가 되어 계층 간 격차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은 기회와 절차가 공정하다고 보고 있기에 결과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게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승자를 능력이 있는 성공한 자로 인식하고 패자는 못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3) 능력주의와 학벌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입시 제도는 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남긴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한 한국의 교육 제도는 개인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반복하며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김용일, 2006; 남인숙, 2011). 대학입시제도는 능력주의 속에서 발생하는 하위권 학생에 대한 낙인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학생들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 혹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혐오표현 또한 학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에 대한 낙인과 멸시, 그리고 학벌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동경하는 문화에 기

반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문화는 성적에 기반한 능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능력주의에 의한 낙인은 학벌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패자에게 향하는 차별과 혐오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벌경쟁의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며 ‘학벌 콤플렉스’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형성되는 ‘학벌 콤플렉스’가 학생들의 재수 결정요인과 학벌경쟁 심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중심질문은 ‘N수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해 N수 증가에 있어 거주지역과 경제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와 N수에 대한 인식 변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환경적 맥락에서 발생한 ‘학벌 콤플렉스’가 N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중심질문은 ‘N수 과정속에서의 개인의 경험은 환경에 따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이다. 이에 대해 환경적 차이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차이를 분석하고 환경적 차이와 무관하게 N수생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중심질문은 ‘N수생의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입시 제도로 인한 사회계층적 대물림 현상을 검토하고, N수로 인한 개인이 겪은 심리적 문제와 내면적 성장을 조명하여 개인을 넘어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N수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연구지 소개

1) 한국사회 : 한국사회는 아주 오랫동안 입시경쟁의 과열과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4년 8월에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는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 및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과 낮은 교육성과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4.4% 증가하였고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을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되었다.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을 격차 중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와 교육적 다양성 부족, 사교육에 대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입시 커뮤니티 : ‘오르비’와 ‘수만취’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입시 커뮤니티로, 다양한 N수생들이 자신의 고민과 정보, 감정, 후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이다. ‘오르비’는 특히 재수 이상 수험생 비율이 높고, 상위권 대학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아 비교적 전략적인 입시 정보와 학습법, 입시 제도에 대한 분석 글이 활발히 올라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수만취’는 대중적인 커뮤니티로써 다양한 수험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험생활의 전반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두 커뮤니티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솔직한 감정과 경험이 잘 드러난다.

(3) 방법론 설명

본 연구는 N수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과 입시 커뮤니티를 통한 자료 조사 등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N수 과정을 몸소 겪은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N수를 결심하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N수 과정 뿐만 아니라 N수 이후 N수에 의해 겪은 심리적 변화나 N수 후유증, N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에, N수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 N수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각 연구대상자와 시간 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1:1 공식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1:1 개별면담을 고집한 이유는 면담 대상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조원이 1:1로 개별면담을 해야 면담 대상자의 솔직한 경험과 심정,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까지도 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면담은 심층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자에 따라 장시간 면담과 단시간 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에 응해 준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이름(가명)	고등학교	재수방식	3수방식	입학대학
명재현	서울 소재 특목고	S 재수종합학원	독학재수	서울대학교
이소영	대전 소재 일반고	독학재수	해당 없음	건양대학교
박지훈	대전 소재 과학고	J학원 재수종합관	J학원 독학재수관 독학재수 관리형 독서실	충남대학교
박만서	대전 소재 외고	J학원 재수종합관	해당 없음	중앙대학교
김장윤	대전 소재 여고	J학원 독학재수관	해당 없음	충남대학교
유인용	대전 소재 여고	J학원 재수종합관	해당 없음	한남대학교

환경적 차이가 N수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면담 대상자를 설정할 때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학생들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심층 면담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환경적 차이에 따른 재수 방식의 차이, 이를 통해 발생하는 N수에 대한 인식 차이와 N수 경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과 함께 입시 커뮤니티에서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를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환경과 입시 환경 등이 겹치는 면담 대상자가 있었기에,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환경에 놓인 N수생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어 N수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심리적 고통, 개인의 고민이 잘 드러나는 입시 커뮤니티인 ‘오르비’와 ‘수만취’를 살펴보았다.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N수 후기’, ‘N수 경험’ 등 N수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최근 입시 환경과 수험생들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의 게시글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내용의 분석

(1) N수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사회적 맥락

매년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응시자 중 N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변화에 기인하는데, 본 연구는 재수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환경적 변화, 학벌 콤플렉스로 인해 발생하는 상위권 대학 선호와 의대쏠림현상, 환경적 차이에 따른 N수에 대한 인식 차이에 초점을 맞춰 N수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1) 거주지역과 경제적 환경이 N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대학 입시에서 재수, 즉 N수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학업 의지나 능력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수에 대한 인식은 학생이 처한 환경, 즉 지역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N수생 비율과 더불어, N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지역 및 경제적 배경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권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 스스로가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든다. 서울 강남, 서초 등 입시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문화가 일반화되어 N수생 비율이 높다. 강남 8학군에서 자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졸업한 명재현 군은 고등학교 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N수를 염두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1/3 정도는 재수를 결심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지방의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 출신 이소영 양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수가 망설여졌으며 재수라는 행위가 자신의 욕심처럼 느껴졌다고 답했다. 이처럼 서울의 중심도시나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교육 인프라의 부족, 경제적 제약 등으로 N수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의대 합격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시 합격생 중 41.9%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 수도권 학생은 전체 합격자 수의 62.5%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가 늘어날수록 N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N수에 대한 인식 변화 요소

N수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N수’는 점점 더 보편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대전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출신인 박만서 양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재수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고3 때까지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고 말하며, 본인의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재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출신 명재현 군 역시 자신을 포함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재수를 선택했다고 밝혀 비슷한 분위기를 증언하였다. 대전 소재 여자고등학교(이하 여고) 출신 김장윤 양 또한 예전에는 누군가 재수를 한다고 하면 재수라는 선택이 무겁고 특별하게 느껴졌지만, 자신이 재수를 하던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흔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기에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했다고 답하였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유행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의 N수 선택은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기반 플랫폼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튜브 내에서 공부와 입시를 주제로 한 콘텐츠 또한 더욱 활발하게 제작되고 소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 ‘미미미누’는 5수 끝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시 실패와 재도전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현재 미미미누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약 182만명에 달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재수생의 일상, 학습 방법, 입시 전략 등을 다뤄 재수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N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N수의 대중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수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명재현 군도 미미미누의 이러한 콘텐츠 공유가 재수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3) 환경적 맥락에서 발생한 ‘학벌 콤플렉스’가 N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N수한 학생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N수 결정에 ‘학벌 콤플렉스’의 영향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학벌 콤플렉스’란 대학의 수준, 학벌을 기준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자괴감, 패배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학벌 콤플렉스를 느끼는 정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랐는데, 외고, 자사고, 과학고등학교(이하 과고) 등 일반고보다 학업 성적을 더욱 중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일수록 학벌 콤플렉스를 더욱 심하게 가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라온 환경이나 지역 등에 따라 학벌 콤플렉스를 가지는 정도가 달랐다. 강남 8학군에서 자라 자사고를 졸업한 명재현 군은 자신이 3수한 계기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학벌 콤플렉스라고 언급했다. 명재현 군은 집안 사람들의 학벌이 좋아 학벌 콤플렉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인 꿈이나 부모님의 압박보다 학벌로 인한 남들의 시선으로 인해 N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는 강남 지역 학생들은 대부분 SKY 대학 혹은 의과계열전공이 아닌 이상 자신의 대학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 정도의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성적의 학생들은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고를 졸업한 박만서 양은 교내에 외고를 졸업했으니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으며, 서울 소재 학교 정도는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신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압박을 느껴 재수를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자체가 대학교를 하나의 목표처럼 만든 것이 학벌 콤플렉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학력 콤플렉스는 대학에 대한 욕심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낮은 대학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학을 꺼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학벌 콤플렉스로 인해 학생들이 목표하는 대학 수준이 높아졌으며 소위 ‘의치한약수’라 불리는 의과계열전공만을 목표로 삼고 N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명재현 군은 그토록 원하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합격한 부산 소재의 의과대학을 두고 어느 대학에 입학할지에 대해 고민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의대쏠림현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전 소재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소영 양의 경우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특목고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고등학교였기에 친구들의 목표 대학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주변 친구들 중 SKY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N수를 했다고 언급했다. 수만회에 입시 수기를 게시한 한 학생은 유니스트에 진학했으나 군 복무 중 의대 정원 확대 뉴스를 접하고 N수를 시작했다. 이처럼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SKY 혹은 의과계열전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N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N수 과정 중 환경에 따른 개인의 경험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

자료 분석 결과, N수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주변과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외부적 동기부여 요소, 체력 저하 문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으며 차이점에는 경제적 차이에 따른 N수 방식의 차이와 이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개인이 처한 환경이 심리적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N수라는 환경에서 나타난 N수생들의 경험의 공통적인 요소

먼저, 체력 저하와 건강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 실내에서 공부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해 피폐해지고, 피로감, 무기력감, 불면증, 식욕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명재현 군은 재수 당시에는 학원을 다녔으나 삼수 때는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독학 재수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 역시 거의 모든 N수생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였다. 많은 이들이 재수를 선택했기에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한 압박이 N수생들에게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 또한 중요한 공통 요소로 확인되었는데, 수능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지훈 군은 공부해야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압박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모의고사 역시 재수 기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지를 판단하는 성적표이기에 심리적 압박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N수생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크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험생활 중 외부적인 요소들이 N수생들에게 중요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했다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N수는 단지 공부를 반복하는 일이 아닌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잡고 불안과 싸우는 과정이기에 이를 버텨내기 위한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이다. 자료 분석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합격 수기나 공부 방식, 생활 루틴 등의 게시물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아 공부의지를 다졌다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과 동기부여를 얻은 것이다. 학원 내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와 함께 학원 강사의 격려나 조언이 정신적으로 버티게 해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외에도 특정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지친 수험생활을 지속할 힘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N수생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하며 수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환경적 차이가 개인의 심리적 경험에 주는 영향

재수방식이나 지역에 따라 N수를 위해 투자한 비용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N수 선택과 준비 방식에 있어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재수라는 선택 자체에 부담을 느끼거나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재수를 하는 것에 대한 자책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부모에게 재수 비용을 부담시키

기보다는 직접 아르바이트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태도도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돈이 많이 드는 재수학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독학 재수를 선택하였다. 시스템 의존 없이 독학재수를 한 이소영 양은 재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수종합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자신의 환경을 비교했으며 자신의 재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독학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환경을 원망할 것 같았다고 답해 경제적 차이로 인한 재수 방식의 차이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재수종합학원, 기숙학원 등을 선택하여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재수종합학원에 다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만족했으며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N수의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학습 성향이나 전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자리한 경제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는 심리적 요소에도 영향을 준다.

(3) N수생의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N수생의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의 입시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과열된 학벌 경쟁으로 인한 N수생 증가는 사회계층적 대물림 현상이나 부모와의 갈등,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 문제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 형성과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개인이 성장과 자아 및 가치관 형성 등 사회구성원의 성숙도를 좌우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N수 과정에서 느끼는 심층적 요소들이 개인을 넘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입시제도로 인한 사회계층적 대물림 현상

입시 결과는 공교육에서의 경쟁과 노력으로 인해 결정되며, 이는 공정한 대학 진학의 과정으로 믿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시 과정과 결과에 경제적, 계급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사회계층적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N수를 당연하게 여기며 막대한 비용을 그들의 학업에 투자한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가 어려우며 N수를 도전하는 것조차 망설인다. 이처럼 훗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학벌은 부모가 가진 경제적 자본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박지훈 군은 대치동에 위치한 S학원이 자신이 다닌 재수 종합학원보다 더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경우에 학원비 뿐만 아니라 숙박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수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는 N수생들에게 경제적 고민까지 안겨주며 하나의 압박 요인으로 자리한다. N수생들 간에 형성되는 불평등의 요인은 사회계층적 대물림을 심화시키며 공정하다고 믿어지는 입시제도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다.

2) N수로 인해 개인이 겪은 심리적 문제와 내면적 성장

N수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거나 N수를 하는 친구들과의 비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토로했다. 이들은 자신의 진도와 공부량, 집중력, 성적, 대학 등을 타인과 비교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이 축제를 즐기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공부에 몰두해야만 하는 환경과 타인과의 비교는 인간관계의 고립으로 이어졌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환경은 자기중심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성 결여 문제를 경험했는데, 재수 이후 단체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배려심이 줄어들었고 타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 자체를 힘들어했다. N수를 통한 사회성 결여는 대학까지 이어져 대학에서의 적응에도 방해가 되었다.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재수 이후 내성적인 변한 성격으로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N수를 통한 사회성 결여가 ‘작은 사회’라 불리는 대학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N수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박지훈 군은 3수 이후 기대 이하의 수능 결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전신 아토피 증상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N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을 붕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N수 과정이 개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를 확립하였다. N수를 후회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N수를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고 답했다. N수를 통해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정신적 안정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아 탐색과 자아 성찰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N수 경험은 내면적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N수가 단순히 대학 입시의 실패를 만회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해마다 N수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의 경험, 그리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환경의 N수생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N수 증가 원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연관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벌 콤플렉스와 환경적 차이, 이로 인한 N수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이 N수 선택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 N수 과정속에서의 개인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 비교로 인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경제적 여건에 따른 N수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 정서적 차이를 확인했다. N수생의 증가는 한국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정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형성과 정서적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긍정적으로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 및 가치관 형성 등 사회구성원의 성숙도를 좌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입시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입시로 인해 개인이 겪는 심리적 경험과 사회계층적 대물림 현상을 고려해야 함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국의 입시제도를 수정해나간다면 사회적 불평등과 학벌경쟁 완화, 학생들의 행복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이현주, 전하람, 「대학입시제도의 공정한 경쟁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22, 209-239, 210-211, 215-216쪽.

민웅기, 라유빈, 김선아, 김지희, 「대학입시와 관련한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3집 제1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4, 277-300, 288쪽.

정종우, 이동원, 김혜진,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4-26호, 미시제도연구실, 2024, 1-37쪽.

장희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N수생 비율’ 역대 최고치”, 조선에듀, 2025.01.06..

김현정, “올해 의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8명이 'N수생'”, 아시아경제, 2025.01.18..

이하은, “한국 대학은 사다리인가 유리 바닥인가?”, EBS NEWS, 2021.09.09..

김양분, 남궁지영, 김난옥, 「재수 결정 요인 및 수능성적 향상과 상위대학 입학 성과 분석」, 『교육학연구제』 52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2014, 117-145쪽.

연화정 도서관과 한옥마을 도서관의 공간 정체성 연구

2조: 신서울, 오인교, 이서윤, 장우혁

1. 서론

본 연구는 지난 2021년 전주시가 야심 차게 선포한 '책의 도시'라는 비전이 실제 도시 공간의 물리적 변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경험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전주시는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도서관 공간의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여행을 주제로 한 다가여행자도서관, 시문학의 향기를 품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그리고 잊혀가는 헌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문헌책도서관과 같은 다채로운 성격의 특화 공간들을 잇달아 조성하며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의 확장을 꾀하였다. 본고의 핵심 연구 대상인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과 전주한옥마을 한옥마을도서관 역시 바로 이러한 도시 전체의 문화적 지향과 공간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낡은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공간이다. 특히, 연화정 도서관과 한옥마을 도서관은 단순히 장서의 양이나 열람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유한 주제와 정체성을 부여받은 '특화도서관'으로서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그 지향점에서 뚜렷한 차별



사진1. 연화정 도서관, 한옥마을 도서관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연구들을 찾기 위해 '공공도서관', '공공정책', '관광', '지역 지자체', '특화도서관'을 주제로 검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지자체'와 관련된 연구로서, 최선희(2019)는 "공공도서관 특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연구"에서 특화 서비스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공공도서관의 특화 정책과 그 필요성, 서비스 유형 등을 조사하였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특화 서비스의 사례를 연구에 적용한 다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공공도서관 7개의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도서관의 이용 행태에 따른 특화 서비스의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화 주제는 이용자의 관심 분야와 지역의 특성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었다. 최선희는 특화 자료의 개발이 중요하고, 지역 내 다른 도서관들과 특화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정호(2012)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로서,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도서관의 물리적·행태적·심리적 요인이 이용자의 '장소 애착', 특히 장소의존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체험 가치' 중심의 '장소 가치 지각'을 매개하여 방문 만족도나 재방문의도 같은 관광적 행위 의도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장소성의 형성 요인이 장소 가치 지각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장소 애착'을 매개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유대감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노영희 외(2018)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 콘텐츠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 주제 선정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4단계(준비-조성-운영-확산) 가이드라인을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실행 요소를 제시하였다. 한편, '특화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로서 김수아와 황연숙(2024)은 "특화도서관의 스페이스 브랜딩 전략적 요소를 통한 사례연구"에서 네 가지 유형의 특화도서관과 다섯 가지 인지도 확보 전략 요소(시각적, 체험적, 관계적, 상징적, 정보적)를 제시하고 사례연구 함으로써, 특화도서관의 정체성 강화와 공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이른바 '스페이스 브랜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체험적 요소는 비교적 잘 구현되고 있지만, 외관을 포함한 상징적 요소들이 특화 주제를 다소 미흡하게 환기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 내부에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물을 배치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정정훈(2021)은 '관광'과 관련된 "인천 문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공고화" 연구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다음,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도시 발전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에서 드러났듯이 특화도서관 또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정훈의 연구는 이들이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방증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연구를 통해 특화도서관의 운영전략과 효과, 공간 가치와 이용자와의 관계, 스페이스 인지도 확보 전략, 운영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의 잠재력 등, 연구 대상이 여러 주제 속에서 연구되고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 방법

본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주시가 '책의 도시'라는 비전 아래 조성한 연화정 도서관과 한옥마 도서관에서 방문객은 어떠한 행위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두 공간의 공간 연출 요소는 어떠한지(1), 연구자도 이용객과 동일하게 도서관을 찾아가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는지(2), 두 도서관을 '어떤'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서술하는 데에 있다(3). 연구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두 도서관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두 도서관의 건립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본 연구의 첫걸음이기 때문이고, 방법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션을 관통하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도서관의 건립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공식 웹사이트인 '전주도서관'과 '전주다움',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에서 소개한 내용들과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정제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연화정 도서관과 한옥마을 도서관의 건립 목적은 '책의 도시'라는 장기적인 비전 안에서 개조된 특화도서관을 통해 전주시가 추구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이트들은 연화정 도서관은 전주의 시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오고, 대표적인 도심 속 자연적인 휴식처이자 수려한 경관까지 자랑하는 덕진공원에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연화정 도서관은 그 건립 과정 자체가 전주시의 도시 재생과 문화 공간 창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연화정 도서관은 덕진공원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잘 알려진 명물이자 오랫동안 사람들과 기억과 정서를 공유해온 '연화정'이라는 정자를 현대적인 관점과, 전주시의 문화 자원 중 하나인 한옥 디자인을 바탕으로 재건축함으로써,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며, 특히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2022년 6월, 당시 전주시를 이끌던 김승수 시장이 책의 도시 비전을 선포한 것처럼,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책의 도시 전주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만한 독보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던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단순히 도서관 수 하나 늘리는 것을 넘어서 수십 년간 시민들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자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체험 공간으로 개조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전주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유하려는 시도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전주시가 덕진공원이라는 공간에, 그것도 가장 눈에 띄는 덕진호 한가운데라는 위치에 특화도서관을 건립한 것은, 시민들과 맞닿아 있는 물리적 공간에 책의 도시라는 비전을 아로새김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깊숙이 체감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화정 도서관이 전주도서관의 '직영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운영됨으로써 시 전체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와 관련 정책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연간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주한옥마을이라는 또 다른 매우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공간의 중심부에 섬처럼 자리 잡은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건립 배경과 지향점에 대해 '마음 여행'이라는 콘셉트와 "인생이란 여행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채워가는 삶의 여행자도서관이다"라는 한옥마을 도서관만의 철학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분주한 일상과 여행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찰의 공간에 대한 현대인들의 갈증과 한옥마을이라는 특수한 장소성을 찾는 이들의 감성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알리고 있었다. 특히, 주요 관광지로서 한옥마을이 지니는 고유한 특수성과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일시적이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추

구하는 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깊이 있는 휴식과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 그리고 독특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문헌을 통해 파악된 기획 의도와 실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용객들의 행위 양상 및 경험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도서관별 3회(평일 저녁 약 30분~1시간, 평일 낮 약 1시간, 주말 낮 약 2시간으로 설문조사 병행)씩, 총 6회에 걸쳐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각 도서관의 시간대별(예: 연화정 도서관의 저녁 시간대 연화교 조명 효과와 방문객 동선 변화, 평일 낮의 휴식처 및 관광 명소화 양상, 주말 낮의 나들이객 집중 현상; 한옥마을 도서관의 극심한 접근 어려움과 요일 및 시간대에 따른 극히 낮은 이용률) 분위기 변화, 방문객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대로 추정), 동반자 유무, 특정 공간에서의 체류 시간 및 이동 동선, 사진 촬영, 산책, 독서, 휴식, 대화 등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행위, 빛의 양과 색깔이나 배경음악의 종류 및 크기 같은 시청각적 요소, 방문객 간 또는 직원과 방문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방문객의 참여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와 그 흔적들(예: 연화정 도서관 모래 마당의 '오징어 게임' 흔적, 한옥마을 도서관 대나무 숲의 방문객 제작 엽서들)까지 현장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였고, 동시에 공간에 머무르며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 감정, 떠오른 생각, 잠정적인 해석 등을 함께 메모하여 두 공간이 실제 방문객들에게 무엇이 다르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포착하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참여관찰 과정에서 현장 동의를 얻은 일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문 동기와 목적, 해당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경험 내용, 공간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과 평가를 청취함으로써, 관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방문객들의 내밀한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연구 결과에 질적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관찰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 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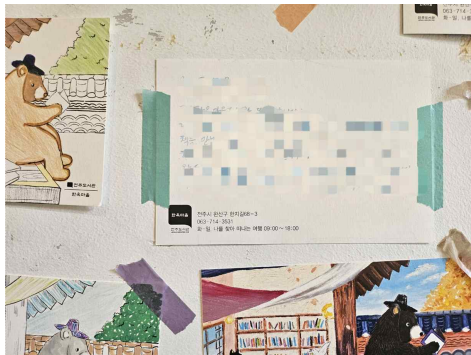


사진2. 한옥마을 도서관 제작 엽서

은 질적 데이터의 의미를 보강하고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 경향을 더욱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 기간 중 지정된 평일 및 주말의 특정 시간대에 각 도서관의 주 출입구 인근이나 방문객 휴게공간 등에서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방문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 내용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나이, 거주지)를 비롯하여, 방문 당일의 동반자 구성 및 관계, 이용 교통수단, 방문의 주된 이유, 공간 내 주요 활동, 공간에 대한 주관적 생각,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 요소, 이용 중 가장 아쉬운 점, 그리고 향후 재방문 의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량적 데이터는 방문객의 이용 만족 수준과 공간 인식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직접적인 관찰이나 설문, 인터뷰 방식만으로는 수집에 한계가 있는, 보다 광범위하고 솔직한 방문객들의 호오 및 기대, 불만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구글 지도와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각 도서관의 명칭 및 연관 검색어(예: '연화정 도서관 후기', '한옥마을도서관 추천')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논평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렇게 확보된 자료들은 (예: 연화정 도서관의 경우 외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만족감과 대비되는 접근성 및 주차 문제에 대한 지적, 한옥마을 도서관의 경우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찾기 어렵다는 의견 등) 본 연

구의 현장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교차 검증함으로써 두 도서관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평가 경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분석

연화정 도서관은 전주 덕진공원이라는 시민의 오랜 휴식처 한가운데 자리하여 그 자체로 공원의 자연환경과 깊은 조화를 이루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다가왔으나, 동시에 연못의 연꽃 유무와 같은 공원 전체의 미시적 변화에 방문객들의 감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저녁 시간이면 호수 수면 위로 밝고 화려하게 주목받는 연화교의 존재감이 도서관 자체의 조명보다 방문객의 시선과 발길을 더 강력하게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성이나 체류 경험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조율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문객들은 대체로 도서관 외부 환경과 덕진공원 연못 등 주변 자연과 어우러짐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의 어려움이나



주차 공간의 부족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해, 아름다운 입지 조건 이면에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이 보여주는 모습 또한 다채롭게 변모했는데,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던 지난 4월 21일 월요일 저녁,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오후 6시 5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관찰된 연화정 도서관과 연화교 일대는 정적인 독서 공간을 넘어선 동적인 놀이의 장으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야간 시간대의 독특한 공간

성격을 예고하고 있었으니, 공원 조명이 채 켜지지 않은 어스름 속 도서관 내부 '모래 마당'에

사진3. 연화정 도서관 마당(오징어 게임 흔적) 는 낮 동안 아이들이 남기고 간 '오징어 게임'의 선과 그림들이 희미하게 남아 시간의 흔적을 드러냈고, 이 시간 동안 해당 공간에서는 여러 형태의 가족 단위 그룹부터 네 쌍의 다정한 연인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두 그룹의 노년 일행, 학생과 외국인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중년 남성들의 무리, 그리고 홀로 산책을 즐기는 듯한 외국인 관광객 추정인 백인 여성 등이 공간의 저녁 풍경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다 저녁 7시 20분경, 마침내 연화교와 도서관, 그리고 공원 주변의 조명들이 일제히 불을 밝혔으나 그 빛의 분포는 사뭇 대조적이어서, 호수 수면 위로 반사되며 밝고 화려하게 주목받은 연화교와는 달리 도서관 본관의 조명은 기능적인 수준의 빛만을 제공했다. 마당의 조명 역시 상대적으로 어둡다 하여 방문객들의 시선과 발길은 자연스레 밝은 다리 쪽으로 향하는 듯했다. 이러한 조명의 차이는 방문객들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도서관 마당에서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한 가족의 어린 딸이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간간히 포착되었을 뿐, 대다수의 방문객은 도서관 외부에서 사진을 찍거나 연인 혹은 노년의 일행들이 연화교 위를



사진6. 연화정 도서관 낮 이용자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조명이 켜진 이후 도서관 내부에 머무르는

이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밤의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머뭇거림의 공간이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통과 지점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짙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일 낮인 4월 30일에 확인된 연화정 도서관의 모습은 또 다른 결을 드러냈다.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여성 방문객들이나 전주 시민 못지않게 타지에서 온 이들이 홀로 또는 삼삼오오 이곳을 찾아와 '휴식과 힐링'을 얻거나 한옥 건축물과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러왔으며, 도서관 안에서는 책을 읽는 행위 못지않게 공간 자체를 탐방하며 산책하거나 사색에 잠기고 또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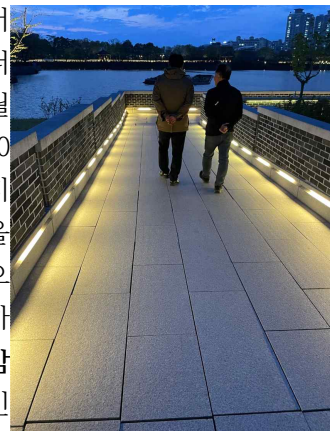


사진4. 연화정 도서관 낮과 밤
이나 자신을 담는 사진 촬영에 몰두하는 등, 이곳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공원 속 매력적인 휴식처이자 관광 명소, 혹은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의 결이 바뀐 5월 18일 일요일 낮의 연화정 도서관은 앞선 두 차례의 풍경과는 확연히 다른, 마치 잘 알려진 주말 나들이 장소와 같은 활기와 복합적인 의미들로 넘실거렸다. 평일의 고요함은 온데간데없이 도서관 내외부는 수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였고 자리를 모두 채우고도 모자라 내부와 외부로 끊임없이 넘나드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가벼운 바람막이 차림에 종이봉투를 든 전형적인 나들이객의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3~4인 단위의 가족 방문객이 가장 두드러졌고 친구와 연인들, 혹은 3인 이상의 친목 모임으로 보이는 이들도 비슷한 수효를 이루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평일에는 보이지 않던 전문가용 카메라 장비를 휴대한 이들도 서너 명 눈에 띄어 사진 촬영 명소의 역할도 분명해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시간대의 풍경을 담



아내는 연화정 도서관의 내부 공간은 '연화당'을 중심으로 주요 장서가 비치되어 독서와 사색을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연화루'와 아이들의 놀이 흔적이 남는 외부의 '모래 마당'으로 구성되어 그 기능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장서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청구기호 대신 '잇다', '채우다', '찍다', '그리고', '점', '여백'과 같은 감성적인 단어들로 책을 분류하여 독특한 큐레이션을 지향하는 동시에 특정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 위주의 장서와 함께 '신과 함께'나 '계룡선녀전' 같은 인기 웹툰 단행본도 발견되어 대중성을 고려한 흔적도 엿보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인터뷰에서는 소장 도서의 다양성 부족에 대

사진5. '잇다'라는 청구기호

한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입구 옆 사무실 문 쪽 8층 높이 책장에 책과 작은 도자기를 함께 배치하거나 책을 펼쳐 표지를 보여주는 미학적 전시 방식, 대부분 나무 재질로 통일된 가구와 함께 한옥 디자인의 특성을 살린 따뜻한 주황색 및 연주황색의 조명이 공간 전체에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배경음악으로는 전통 현악기로 편곡된 대중음악이 흘러나와 방문객이 많고 타지에서도 찾는 이들이 많은 대중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세심한 의도가 읽혔고, 위생 타일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한옥 디자인의 목재 가공품으로 마감한 화장실 등은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구

현하려는 노력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미와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앞서 언급된 도서 다양성 문제 외에도 “팔복동 이팝나무 거리 왔다가 오래간만에 방문”한 한 인터뷰이가 “관광객들이 덕진공원은 관광으로 오지, 도서관에 책 보려는 안 올 것 같다”라면서 “전집들을 놔는데 읽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며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소품 같은 것도 전시해 놓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제언을 남기는 등 즐길 거리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나타났으며,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자연스레 이곳을 찾았다는 또 다른 인터뷰이가 도서관 주변의 수려한 풍경을 방문의 주된 동기로 꼽으면서도 정작 본연의 기능인 장서 내용이나 학술 지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말은 못 하겠어요”라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이곳이 아름다운 경관을 누리는 문화적 휴식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주목받고 있음을 방증하기도 했다. 아늑한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이들이 주말 낮에도 아홉 명 정도 관찰되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얇은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고, 20분 이상 진득하게 독서에 몰입하는 이는 대여섯 명에 불과했으며, 간혹 아이들의 소란이나 방문객들의 대화 소리가 커질 때면 몇몇 어른들이 “도서관이니 조용히 해야지”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소의 소음이 용인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공간을 지배하는 등, 전통적인 도서관의 엄숙함보다는 공원 속 유연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결국 이처럼 연화정 도서관은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특화된 주제 아래 조성된 건축물이자 관광 공간에 더 가까운 공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요일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동적인 놀이의 배경이 되고 때로는 사색과 힐링의 장소가 되며, 또 때로는 북적이는 주말 나들이 명소로 변모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와 경험을 선사하는 관광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화정 도서관이 본래 기능보다 사진 촬영을 위한 '관광 명소'로 더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자연환경과 한옥 건축의 미학이 결합된 이 공간이, 책이라는 지적 콘텐츠를 사유하는 경험보다 SNS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취향을 과시하고 '인증'하려는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옥마을 도서관의 특징이자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관문은 바로 극도의 접근 어려움으로, '가락청' 같은 숙박시설과 '한옥마을 김선달 운세 뽑기' 같은 소규모 상업시설 등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한옥 건물들 사이에 마치 꼭꼭 숨겨진 보물처럼 자리한 탓에, 유일한 단서인 낡은 나무 안내판을 발견하고도 '황손의 집'이라는 팻말을 따라 여러 겹의 골목을 더듬어 나가야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은밀함은, 특히 마당과 마루는 물론 외부 골목 자체에 별도의 조명 시설이 거의 부재한 공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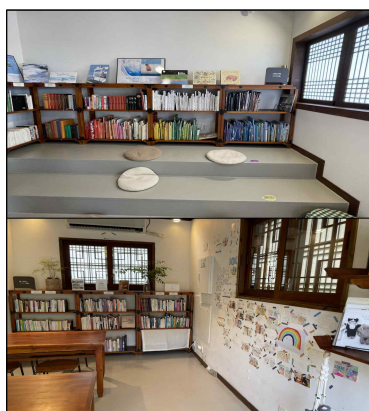
사진7. 한옥마을 도서관 외관

저녁 시간에는 그 경로마저 어둠에 잠겨 있어 찾아가는 여정이 다소 고되었다. 이는 도서관이 마치 한옥마을의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깊숙이 격리하며 '숨겨진 아지트'로서의 면모를 극대화하는 듯했고, 한옥마을 자체가 지닌 강력한 관광



지로서의 흡인력이 역설적으로 이 작은 도서관의 존재감을 주변의 다채로운 볼거리에 '묻히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은둔성은 시간의 흐름과 요일의 변화에도 거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5월 7일 평일 저녁 5시 30분부터 30분 동안 경험한 풍경 속에서는 도





서관 내부나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이용하는 이는 없었고 공간은 온전히 깊은 정적 속에 잠겨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 고요함만이 감돌았다면, 평일인 5



월 16일 낮의 관찰에서도 여전히 공간 전반에는 한적함이 주조를 이루었고 간혹 가족 단위나 연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찾아와 '대나무숲'에서 아이와 함께 엽서를 꾸미거나 '마음 곳간' 혹은 '꿈 방앗간'의 책들을 잠시 뒤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는 했으나 독서 활동에 깊이 몰두하는 이보다는 체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대나무숲' 벽면에 아이들의 손길이 닿은 듯 얼룩덜룩 다채롭게 색칠되어 조밀하게 붙어 있는 엽서들은 마치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짧은 감정의 일면들처럼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이날 '마음 곳간'과 '꿈 방앗간'에 각각

사진8. 마음 곳간, 꿈 방앗간, 대나무숲 한 명씩 상주하며 노트북 앞에 앉아 간간이 찾아오는 방문객

수를 기록지에 표기하던 관리자가 기록한 숫자는 평일 낮 대나무숲에 3분 이상 머문 이 세 명, 마음 곳간에는 관리자를 제외하면 한 명, 꿈 방앗간에는 관리자와 유아 둘을 동반한 어른 한 명 정도로 극히 미미했고, 그 외 서너 명은 도서관 외부 공간을 잠시 배회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주말인 5월 18일 낮에 다시 찾은 도서관 역시, 평일 낮이나 공휴일 저녁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들—남성 두 명, 외국인 여성 두 명, 가이드와 동행한 외국인 남성 한 명과 또 다른 연인 정도—이 스쳐 지나가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은 세 공간의 내부 구성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잠시 둘러볼 뿐 적극적으로 공간의 프로그램이나 장서를 소비하며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이내 발길을 돌리곤 했고, 주말임에도 '대나무숲'에 3분 이상 머문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마음 곳간' 방문객은 관리자를 제외하면 두 명, '꿈 방앗간'은 관리자 외에 이용객이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러한 극히 낮은 이용률은 연화정 도서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 독특한 성격을 방증했다. 이렇듯 한적함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가운데, 도서관의 내부 공간은 '한옥마을 여행자도서관'이라는 소박한 이름 아래 '마음 곳간', '꿈 방앗간', '대나무숲'이라는, 그 철학적 주제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름으로 세심하게 구획되어 있었는데, '마음 곳간'은 성찰을, '꿈 방앗간'은 마음 치유를 위한 책들이 집중된 사색과 독서의 공간으로, '대나무숲'은 엽서 꾸미기를 중심으로 한 체험 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며 연화정 도서관의 유사 활동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꾸며진 방문객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장서는 '한옥의 아름다움 칸', '전주의 색과 역사', '똑똑, 마음의 문', '환상의 세계' 등의 주제나, '취미의 발견', '나의 알고리즘', '시간 도둑', '예술', '똑똑이 존' 같은 이름으로 각기 다른 느낌을 담아 세심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동심' 태그는 동화, '건축'은 한옥 관련 지식, '나의 길'은 어른들을 위한 자기계발서나 입문서, '관계'는 인간관계 관련 지식 서적과 연결되는 등 그 분류 체계 또한 한옥 및 '삶의 여정'이라는 도서관의 주제와 관련된 성찰적 콘텐츠에 집중하려는 분명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공간 전체에는 나무 재질의 가구가 주를 이루면서 한옥 공간의 특성을 살려 이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주황색의 단일한 조명이 공간 전체를 감싸며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꿈 방앗간에는 방석과 함께 놓인 전형적인 낮은 좌식 책상

이, 마음 공간과 대나무숲에는 어른 기준에서는 평범하지만 주로 어린이가 사용할 법한 곳임에도 다소 높을 수 있는 단일한 높이의 책상이 통일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마치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각자의 활동에 몰두하거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임을 시사하는 듯했다. 배경음악으로는 전통 현악기로 편곡된 디즈니나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의 OST가 잔잔히 흘러나왔는데, 이는 방문객에게 편안하면서도 미묘한 설렘을 안겨주는 동시에, 원곡이 지닌 신비로운 분위기가 도서관 자체의 '숨어있는' 매력 및 성찰적 주제와 어우러져 그 독특한 경험을 한층 깊게 만드는 소소하지만,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하는 듯 보였고, 책들은 표지가 보이도록 관중석에 배치되거나 펼쳐



진 형태로 전시되었으며 공간 곳곳의 화분과 함께 일반적인 책 소개와는 결이 다른 '한옥의 길', '토닥토닥 마음 톡톡' 같은 아크릴 관중석이 책장 위에 놓여 아기자기함을 더하고 있었다.

사진10. 한옥마을 도서관 책 배열

이러한 공간을 경험한 소수의 방문객 타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한옥마을을 찾았다가 '휴식 및 힐링'을 주된 목적으로 이곳에 우연히 들렸다고 밝혔으며, 주로 '휴식 및 사색'과 '대화 및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응답하면서 이 공간을 '공원 및 휴식처'이자 동시에 '도서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도서관 외부의 정갈한 한옥 외관과 주변 한옥마을의 풍경에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다'라고 답하며 재방문 의사를 밝혀, 비록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 방문객의 “한옥 하면 생각하는 것을 많이 넣어놨다”라는 후기는 한옥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도서관의 노력이 방문객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전반적인 홍보 부족과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는 여전히 이 숨어있는 도서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주된 장벽으로 남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는 여행'이라는 특화된 주제에 집중하는 공간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였지만, 접근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했기에 마찬가지로 특화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한옥마을 도서관은 그 독특한 위치와 분위기, 그리고 운영 방식의 총체적인 결과로써, 연화정 도서관처럼 다양한 방문객층을 포용하며 적극적인 문화 향유의 장이 되기보다는, 한옥마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매우 특정하고 제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그 자체로 신비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각 공간에 꾸준히 상주하는 관리자들과의 존재는, 이곳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관광 공간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그 가치를 세심하게 보존하고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를 지켜내어 방문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쉼터'를 제공하려는 연화정 도서관과는 다른, 일관된 노력을 지속하려는 시도로 읽히면서, 공휴일 저녁의 완벽한 은둔과 평일 및 주말 낮의 소극적인 현존을 통해 이러한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옥마을 도서관의 은둔성이 역설적으로 '쉼터'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상업화된 관광지 지의 소음과 과잉된 정보로부터 벗어나 의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추구하는 방문객에게 그 발견의 어려움 자체가 '정서적 안정감'을 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들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도서관과 '여행자를 위한' 도서관이라는 기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창출되고 있음을 참여관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화정 도서관은 연화교 등의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 연화루 공간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하여 방문객을 유인하고 있었지만, 정작 도서관 본연의 정적인 독서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양상을 보여, '도서관'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 공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아 보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한옥마을 도서관은 공간 자체의 은둔성과 접근성의 부재는, 참여관찰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휴식'과 '사색'이라는 예상외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상주는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단일하지만 일관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옥마을 도서관은 도서관도, 관광 공간도 아닌 '쉼터'로 해석되는 것이 옳아 보였다. 이 두 사례는 공간의 정체성이란 특정한 의도나 비전에 지배되는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위치'와 공간 요소들과의 관계 맺으며 재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줬다. 지자체의 '기획 의도'가 실제 현장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이 공간을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급자 중심의 상징적 결과물'로 접근하는 반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일상적 필요와 욕구(휴식, 사진 촬영, 대화 등)를 해결하는 사용자 중심의 도구로 공간을 전유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건립될 지역의 특화도서관의 설계와 구상에 적용되어 공급자 중심의 기획이 아닌, 기존 공간이 다른 요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조사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서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방문객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해당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인지도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공간'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 최선희. 2019. "공공도서관 특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정호 .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 no.3, (2012): 253 - 278.
- 김수아 and 황연숙. "특화도서관의 스페이스 브랜딩 전략적 요소를 통한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3, no.2 (2024) : 30-39.
- 노영희, 정대근, 김미연 and 이용미.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 no.4 (2018) : 119-145
- 정정훈 (2021). 인천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공고화. 인천학연구, 1(35), 7 - 37.
- "연화정 도서관." 대한민국 구석구석.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632cf855-845c-4f1e-a4dc-8ff2ab69fccd.
- "전주 덕진공원 명물 '연화정', 재건축 거쳐 도서관으로 변신." 연합뉴스.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2165500055>.
- "전주 덕진공원, 한옥마을과 함께 전국 명소로 키운다." 한겨레.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5901.html#cb>.

"'한국적 아름다움'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개관." 전북일보.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www.jjan.kr/article/20220602580264>.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40년 만에 새단장." 전북일보.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www.jjan.kr/article/20201202721714>.

"'한국의 멋 뽐내'...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개관." 전라일보.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510>.

"연화정 도서관." 전주소서관.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lib.jeonju.go.kr/index.jeonju?menuCd=DOM_000000107008001043&cpath=.

"전주답게 지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전주다움.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daum.jeonju.go.kr/web/page.php?pcode=D&wgroup_code=urvzfrcvfj8fu9gs&webzine_code=txgz8i5ufvvdvdfsh&&page=42.

"전주 연화정 도서관." 열린관광.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access.visitkorea.or.kr/ms/detail.do?cotId=44173358-640e-4fa8-9db9-2d74dd69cbc8>.

"전주한옥마을 도서관." 대한민국 구석구석.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98fced9a-c1f4-4aae-9ae3-c9a38457182e.

"한옥마을도서관." 전주소서관.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lib.jeonju.go.kr/index.jeonju?menuCd=DOM_000000107008001053&cpath=.

"여기가 카페야, 별장이야?" 한겨레21.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h21.hani.co.kr/arti/photo/story/56155.html>.

"도서관여행." VISIT JEONJU.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tour.jeonju.go.kr/index.jeonju?menuCd=DOM_000000101001003001.

"[전북]전주 특화도서관 '한옥마을도서관' 개관." 전라일보.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863>.

"전주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선포." 전주일보.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28>.

"'책의 도시' 전주에 가면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 전북중앙. n.d. 수정, 2025년 5월 6일 접속,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092>.

공유형 문화공간 형성에 따른 지역 활성화 -전주 경원동# 사례를 중심으로

3조: 이정원, 송하영, 정수빈, 탁지민

I. 서론

지방 소멸과 원도심 쇠퇴는 오늘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감소, 경제 기반의 약화, 사회적 활력의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들은 행정적·물리적 차원의 위기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약화와 문화적 정체성의 붕괴라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은 한때 도시의 중심이자 지역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능이 멈춘 공간으로 전락하며 주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 및 경험에 주목하는 공유 커뮤니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유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공간은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며, 새로운 형태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정체성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주 원도심의 공유 커뮤니티인 ‘경원동#’을 중심으로 공유 커뮤니티가 지역문화 형성과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경원동#은 기존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공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주도의 자율적 운영과 관계 기반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와 이야기로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간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실제로 지역 정체성 및 이용자들 간의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소멸과 원도심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원동#의 사례를 통해 공유 커뮤니티가 단지 지방 소멸 및 원도심 쇠퇴 문제의 대안책이 아닌, 지역문화의 재구성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홍천의 ‘분홍공장’과 부여의 ‘생산소’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전환해 지역민의 일상 속에 예술을 스며들게 하고, 외부 예술인과의 협업 구조를 통해 문화 교류를 지역에 유입시키고 있다. 두 공간 모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시도하는 장소로서 문화공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례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대표자 및 운영자 입장에서 서술에만 집중한 반면 참여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¹⁾

이러한 문화공간의 운영 방식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작동하는 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1) 고용수. (2025). 문화예술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소멸위험 지역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동체 조직화와 도시재생의 주체로 기능하는데, 그 속에서 조직 내 자원 활용, 관계 형성, 공동체 정체성 구축 과정이 나타난다. 관련 연구에서는 주체성을 지닌 지역민들의 등장과 공동생산 구조를 강조하며,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이 직접 문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제도화된 틀 내의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²⁾

지역의 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공간의 기능적 역할에는 문화예술적·상호교류적·지역사회적·사회복지적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4가지 역할은 지역문화공간이 지역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해준다. 또한, 기능적 역할을 반영한 문화공간 콘텐츠 형성은 지역구성원-자원-공간 네트워크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지역 애착도 및 정체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³⁾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와 같은 콘텐츠에서 지역성, 공공성, 예술성 등과 같은 요소는 참여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성은 만족도와 지역정체성, 애착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참여자는 지역을 자신과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는 참여자의 일상과 지역 간의 연관성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문화 콘텐츠 참여 행위는 실제 지역 애착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행사의 만족도는 지역 정체성과 애착도를 매개로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⁴⁾

위 선행 연구들은 문화공간이 지역공동체 형성 과정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며 문화공간의 역할에 주목한다. '분홍공장'과 '생산소'는 지역 예술과 주민 간의 연결에 집중하여, 문화공간 내 관계 회복 과정을 보여준다. 도시재생의 주체로 기능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공동생산 구조가 형성되며, 조직 내 자원 활용과 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현상이 드러난다. 지역문화공간은 지역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문화공간의 콘텐츠는 지역 구성원과 자원, 공간과의 연결로 이어지며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낸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성, 예술성, 공공성과 같은 요소는 지역 정체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이는 지역 애착도 형성으로 이어지며, 참여자의 일상과 지역 간의 연관성이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원도심 속 새로운 문화공간, 공유 커뮤니티가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형성과 확산에 관여하는 형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과 원도심 쇠퇴라는 구조적 현상(인구 감소, 경제 침체, 기반시설 쇠퇴 등)을 파악한 결과,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의 붕

2) 임정하. (2025). 지역재생을 위한 공동생산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 쇠퇴 원도심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 이영주. (2019). 『지역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문화공간 콘텐츠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1호 통권 55호.

4) 천인우. (2024).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만족도가 지역정체성 및 지역애착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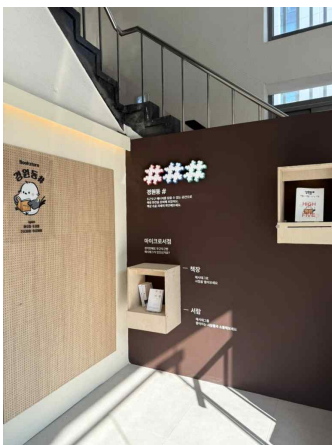
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 문화공간과 공유 커뮤니티의 형성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나 담론은 주로 거버넌스, 인프라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문화공간의 형성과 지역 활성화 간의 관계’, ‘지역적 자원(물질/비물질)’, ‘이용자 경험’과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문화적 요소 및 관계성을 언급한다. 나아가 지방 소멸 및 원도심 쇠퇴에 대한 문제점 인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원도심 속 새로운 문화공간의 형성이 어떻게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가?
- ② 조직 내에서 지역적 자원(물질/비물질)은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가?
- ③ 사람들은 경원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가?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들의 연결성을 분석해보자면, <연구 질문 1>을 통해 원도심 쇠퇴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문화공간이 어떤 사회·문화적 원동력을 제공하고 창출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쇠퇴한 도시 공간이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재의미화되는 모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질문 2>는 지역 내 자원(장소, 관계망 등)이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지 파악함으로써 정체성 형성과 커뮤니티 구축 방식을 밝히려는 시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간 운영 주체들이 장소성과 지역 자산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연구 질문 3>은 공간의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질문으로, 공유 커뮤니티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용자의 문화적 경험이 어떻게 경원동#과 연결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각 질문은 공간/자원/이용자라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공유 커뮤니티의 작동 방식을 다방면으로 연구하려는 목적에서 도출되었다.

2. 연구지 소개



본 연구의 연구지는 전주 경원동에 위치한 ‘경원동#’이다. 2023년 11월 문을 연 경원동#은 책장을 임대해 운영되는 공유형 서점으로, 일반 서점과 달리 책장주가 책을 진열하고 판매한다. 책장 한 칸을 임대한 책장주는 자신만의 이야기, 관심 주제와 관련된 책, 물건, 문구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렇듯 경원동#은 공유 서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굿즈 전시 및 판매, 북토크,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대표는 일본의 독립 서점을 방문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공간을 구상하였으며, 전주 원도심 내에 자리한 이 공간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자도 많이 찾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책장주 중에는 전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도 많아, 경원동#은 지역 주민 간의 관계망을 형성함과 동시에 타 지역과의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원동#이 위치한 건물은 공유 오피스로도 활용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대표 또한 전주시내에 오래 거주하며 도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온 인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원도심에 '즐거워 도시연구소'라는 공간을 마련했다. 연구자들 또한 지방 소멸과 원도심 쇠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와 공유 커뮤니티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경원동#을 연구지로 선정하였다. 현재 경원동#에서는 북토크, 책장주 주도의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책장주는 4주간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마지막 주에는 해당 저자를 초청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갖는다. 공간은 서점 외에도 회의실, 소모임 장소, 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데, 경원동#은 사람들이 편히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이러한 공간 운영 철학은 경원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연구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3. 방법론 소개

본 연구에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는 원도심이라는 복합적인 지역 맥락과 문화공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공간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먼저 질적 연구로는 현장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25년 5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경원동#을 방문하여 공간의 물리적 환경, 콘텐츠 구성 방식,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관찰하였다. 또한 대표와 서점 운영자(매니저) 각 1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참여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에, 각각의 관점에 맞춘 인터뷰 문항을 구성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 및 내용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표에게는 공간의 설립 배경, 철학, 지역성과의 연결 지점을, 서점 운영자에게는 실제 운영 방식과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양적 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하여 원도심 재생, 지역문화공간, 문화 콘텐츠 구성, 지역 정체성과 애착 형성 등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경원동#에 방문했던 이용자들의 블로그 후기를 수집하여 공간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경험의 정서적 요소, 지역문화 관련 감각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공간 이용자 및 블로그 작성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원동# 대표와 운영자의 협조를 받아 QR코드가 인쇄된 설문 안내지를 제작해 공간 입구에 부착하였다. 해당 방식으로 총 5부의 설문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필수 응답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블로그 작성자 대상 설문은 블로그 댓글을 통해 설문 목적과 연구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질적 및 양적 접근을 바탕으로 경원동#이라는 공간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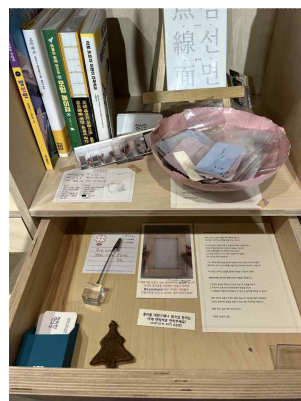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IV. 연구 내용 분석

1. 지역 문화공간의 기능과 경원동#의 실천 방식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역문화공간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시, 공연, 창작 활동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적 기능. 둘째,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상호교류적 기능. 셋째,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지역사회적 기능. 넷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적 기능이다. 경원동#은 해당 4가지 기능을 포괄하면서도 더욱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공간의 대표적 콘텐츠인 '책장주'와 '서랍'은 각각 서가와 소품 진열을 신청자가 주도해 기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책장주는 참여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와 소통한다. 이는 기존의 기획자 중심 운영 방식과 달리 누구나 콘텐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블로그 후기에 따르면 각 책장마다 고유한 분위기와 서사가 담겨 있고, 서점 전체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전달하며 방문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이와 같은 콘텐츠 구성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한 블로거는 책을 고르는 행위보다 책장을 둘러보는 경험 자체가 기억에 남았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공간이 판매 중심의 서점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과 소통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토크, 소모임, 오픈 마이크 같은 프로그램 역시 운영자의 주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제안과 참여로도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기획자, 관객, 친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동의 장에서 관계의 경계가 흐려짐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원동#은 어떤 걸 기획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고, 공간이 생기니까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밝히며, 이 공간이 기획보다 관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을 강조했다. 매니저는 “책장주로 참여하는 건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누군가가 그걸 발견해주는 경험이 특별했다”고 회상했다. 이는 경원동#이 개인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공간이자, 그 이야기가 타인과 연결되는 접점임을 보여준다.

2. 콘텐츠 실천과 지역문화 형성

경원동#에서 형성되는 지역성은 전주의 역사나 전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공간에 모인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감각된다. 대표는 “서울에만 있는 이야기를 전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공간이 특정한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설문조사에서도 경원동#은 단순 책방이 아닌 ‘문화공간’, ‘사람이 모이는 장소’, ‘전주에서 흔히 않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더라도 “지역성을 실감하지 못했다”, “무엇이 지역성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경원동#이 표방하는 관계 중심 커뮤니티 구조가 사용자마다 상이한 밀도로 체감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곳의 지역성이 명확한 상징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관계적인 층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매니저는 “책장주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꼭 지역성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나 배경이 지역의 문맥과 연결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콘텐츠가 의도적으로 지역색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위치성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성이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원동#은 도시재생 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대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리고 경원동#으로써는 사실 저희가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모여서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주에도 있고 그거를 쉽게 여기 와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점에 이제 일종의 거점을 만들자.”

또한, 공공자금의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그냥 여기 공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한참 초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지자체에서 돈 얼마 받았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신 거예요. 보조금 어디서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안 받았어요. 다 이걸 저희가 돈을 벌어서 진행한 거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역올랐거든요. 공공성에 있는 거를 개인의 회사가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지자체에서 한 70~80%는 돈을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는 가능하면 전주시한테는 돈을 안 받는 것이 목표였어요. 돈을 받을 거면 회사로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국가 부처에서, 그 회사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는 돈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나쁘다기보다는 ‘보조금을 안 받고도 이게 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는 공공자금의 지원을 떠나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해왔음에도 외부의 고정관념이나 제도적 시선이 이러한 독립적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기존 연구 사례들은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정책 기반의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예산, 공간, 프로그램이 상위 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공간은 이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경원동#은 상향식 구조를 지향한다. 대표 인터뷰에서는 “책장주들이 관계 유발자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공간은 특정 기획자 없이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방문객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일부는 경원동#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상향식 구조는 운영자와 책장주간의 꾸준한 소통과 감정적 교류를 전제로 한다. 대표는 인터뷰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일이 많았다”고 말하며, 책장주 약 60명과의 관계 유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 소비자가 책장 주인 상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설득해서 하는 것 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가게 운영이 정말 중요하니까 매출을 낼 수 있냐 안 낼 수 있냐에 대한 것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책장 한 칸을 사업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회사를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깐. 이야기할 때 조금 편해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애정을 가지게 만드는 일들이 조금 좋아서 저희가 구도심 캠퍼스보다는 경원동#에 집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저희 경원동 내에서 회사를 하시는 분들을 잘 몰랐는데 여기 책장주들이 전주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른다면 다 소개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원동 내에 있는 여성 대표님 한 4~5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다 조금 지역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그분들의 목표를 따라 많이 팔아주고 싶어 하는 로컬샵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기존에 몰랐던 로컬 창작자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는 경원동#이 지역 내 문화경제의 작은 연결 지점으로 기능하게 만든 변화라 할 수 있다. 경원동#에서의 지역성은 명시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연결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원동#은 도시재생의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율적인 실험공간이자,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유연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외부 문화공간과의 비교(분홍공장, 생산소, 시부야 OO서점을 중심으로)

홍천의 분홍공장과 부여의 생산소, 일본의 시부야 OO 서점 등 외부 문화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경원동#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문화공간들은 공간적 위기를 배경으로 공동체성, 물리적 경험 회복, 관계 중심의 문화를 공통된 주제로 다룬다. 그러나 운영 구조, 자금 방

식, 공동체 형성 등의 면에서 경원동#과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먼저 경원동#은 책장주와 방문자 등 참여자가 콘텐츠 기획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다. 참여자는 자신의 취향과 이야기를 담은 책장을 구성하고, 북토크나 소모임 등을 제안하며 공간을 함께 만들어간다. 시부야 OO 서점 역시 선반을 임대한 개인이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유사하다. 반면 분홍공장과 생산소는 기획자나 운영자의 주도로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분홍공장은 매년 정해진 주제 아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공 문화 사업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또한 자금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원동#은 무보조금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공공기관의 자금을 받지 않고 공간 수익과 참여자 운영으로 자립을 추구한다. 반면 분홍공장과 생산소는 지자체나 문화 진흥 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시부야 OO 서점은 책장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나 시장 기반 상업 구조라는 점에서 경원동#과는 다르다. 지역성과 공동체 형성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분홍공장은 지역의 역사와 예술자원을 반영한 전시로 고유성을 강조하고, 생산소는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와 교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시부야 OO 서점은 책을 매개로 한 개인의 취향 공유와 도시문화 회복에 초점을 두며, 경원동#은 참여자 개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전주다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성을 관계적 층위에서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공간 운영 철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분홍공장과 생산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문화 접근성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부야 OO 서점은 오프라인 연결을 지향하지만 상업 구조 내 관계 형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경원동#은 기획된 목표보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기획 중심이 아닌 열린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지역문화공간에 대한 이론적 틀과 경원동#의 맥락

경원동#의 대표적인 운영 방식인 ‘책장주’ 제도는 각자의 취향과 이야기, 정체성이 ‘책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장소에서 개인의 상징이 각인되는 실천으로, ‘상징성’⁵⁾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책장 서랍에 남긴 쪽지, 명함 공유 등은 방문자 간의 자발적인 소통을 유도하며, 공간 안에서 관계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서점 대표는 공간 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사례를 인터뷰에서 통해 밝혔다.

“(…) 어떤 분의 책장은 4주간 그분이 책을 한 3권 정도 같이 독서 모임 운영한 다음에 5주차에 와서 같이 작가님과 이야기하는 모임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서 전주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가 책장주 모임으로 반상회도 해서 1회차 때 30분 정도가 타지역에서 오시고 또 재미있는 것이 서울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여기 오셔서 북토크를 하고 가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신 게 너무 기억에 남은 거예요. (…) 작가님이 신작 나온다고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 한 번 더 오셨거든요. 그때 주제가 고립이라는 주제였어요. 고립이라는 주제에 손님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데 그중에 고립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또 그 작가님을 섭외하여서 그 다른 곳에서 북토크가 열리게 된 거예요.”

5) 천인우. (2024).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만족도가 지역정체성 및 지역애착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원동#의 이용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행위자’의 기능을 하며, 공간을 함께 구성하는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한다. 위 두 사례를 통해 쪽지나 북토크, 소모임 등의 교류는 소통의 물리적 경로로 기능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천인우(2024)가 주장한 생활 애착과 친목 애착이 경원동#에서 실제로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회사들 중에서 전주에 책장주 하시다가 전주에 관심이 생겨서 실제로 전주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장주분들은 전주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앉아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시고 전주에 원래 연고가 없었는데 여기 연고가 생겨서 여기서 사람을 만나야지 하거나 전주로 오면 자기 서점 보여주려고 온다거나 하는 그런 지점들의 연결 지점이 있을 것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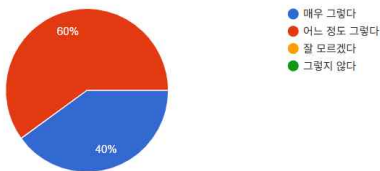
이를 통해 본래 전주와 접점이 없던 사람들이 책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주,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원동#이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자에게 연구지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에 대한 연결과 애착의 증거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원동#의 운영 방식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은 전적으로 운영자와 참여자의 협업에 기반한다. 이는 기존의 공공문화공간이 갖는 위계적 기획 구조와는 다른 상향식 구조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공공성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누구나 책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는 접근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담보한다. 공간의 구성 방식에서도 기획자의 전문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7. 경원동#이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5개



다. 책장 시스템, 인테리어 설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장치 등은 단순한 감성적 연출을 넘어서 관계의 흐름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원동#이 일회성 이벤트 공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을 통해, 경원동#은 천인우(2024)가 제시한 지역성, 정체성, 애착도 이론을 현실 속에서 자율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현장 기반 문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성과 공동체성은 특정 담론이나 정책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일상의 실천과 관계를 통해 서서히 구성되고 축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경원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형성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새로운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경원동#의 주변 일대는 상권이 들어서지 않은 빈 거리였지만, 운영을 통해 주변 상권과 거리, 유동 인구가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문화 공간의 형성이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책이나 굿즈, 공간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한편, 방문자들과의 소통 및 새로운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물질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연결과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북토크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자발적인 분위기는 재방문을 유도했다. 따라서 경원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점’이라는 지향점을 가진 만큼 공유형 문화 공간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과 소통,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과 표본의 제한으로 인해 관찰 대상의 수가 부족하였으며,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참여 관찰의 횟수가 제한적이었기에 커뮤니티의 역동성과 변화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찰과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공유 문화 공간의 지역사회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원동#과 같은 공유형 문화 공간은 사람 간의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관계인구’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간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자에게도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역 문화 확립과 전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전주 ‘경원동#’을 시작으로 대전 ‘제이의 서재’, ‘은유림’, 대구의 ‘어반커먼즈 공유 오피스’, 목포의 ‘포도박스’ 등과 같은 공유형 서점과 커뮤니티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문화공간이 확산될 경우 각 지역의 원도심이 문화 중심지로서 재조명 받고, 상권 회복 및 유동 인구 증가와 같은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짐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VI. 참고 문헌

1. 고용수. (2025). 문화예술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소멸위험 지역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47), 53-78.
2. 이영주. (2019). 『지역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문화공간 콘텐츠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1호 통권 55호. p.131-138.
3. 임정하. (2025). 지역재생을 위한 공동생산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 쇠퇴 원도심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5(1), 142-195.
4. 천인우. (2024).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만족도가 지역정체성 및 지역애착도 형성에 미치는 영

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1-114.

5. 즐거운 대표. (2022년 11월 23일).

관계인구 키워드1: 덕질 X 부업 X 소소한 공간. 즐거운도시연구소.

<https://www.enjoycity.kr/36/?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jt9&bmode=view&idx=13521413&t=board>. (2025년 5월 26일 방문)

6. 책방의 부가가치, 관계로 쌓아올린 박스 한 개의 책방. (2022년 10월 24일). brunch story. <https://brunch.co.kr/@jaehyukjung/563>. (2025년 5월 26일 방문)

7. 엄승현.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전북일보. (2022년 11월 15일). <https://www.jjan.kr/article/20221115580285>. (2025년 5월 28일 방문)

8. 최다니엘. 원주 원도심 상권 쇠락 가속화... 매출 감소, 공실 많아. 오마이뉴스. (2022년 8월 19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860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5년 5월 28일 방문)

한옥마을 젠트리피케이션과 서학동 예술마을의 형성

4조: 나은찬, 이경민, 제갈정송

1. 서론

전주 동서학동에 위치한 서학동 예술마을은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마을이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화가, 미술가, 도예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리 잡아 살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한옥을 포함한 구옥을 해체하는 것이 아닌 개조, 수리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집과 비교하여 튀지 않고, 조화롭게 섞여 들었으면서도 각자의 취향에 맞는 외관을 보여 서학동 예술마을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쇠락한 낙후지역으로 활기를 찾아 볼 수 없었으나, 2010년 소수 예술가들의 이주를 시작으로 다시금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축제를 벌이고, 낙후된 벽에 벽화를 그리는 등 기존 주민들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국비 지원으로 대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 예술 테마거리 조성의 수혜를 받으며 현재 전주시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서학동 예술마을의 시작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KBS의 프로그램 <다큐 3일>에 출연한 서학동 예술마을의 현 촌장이자 설치미술가 한숙 작가는 자신이 서학동 예술마을로 이주하게 된 계기로 한옥마을의 상업화를 꼽았다. 한옥마을이 상업화되며, 인근 관광지의 지대가 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존의 작업실이 있었던 영화의 거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한옥마을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과, 그로 인한 서학동 예술마을의 형성, 그리고 도시재생 이후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심층 면담을 통해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 1) 도시재생인가, 젠트리피케이션인가?: 충청북도 청주시 윤리단길의 지역 변화를 중심으로
김종성, 김 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4

해당 논문에서는 청주시의 한 쇠락 지역에서 서학동 예술마을과 동일한 도시재생사업의 수혜를 받아 관광지로 바뀐 ‘윤리단길’의 사례를 소개하며, 윤리단길에서 보이는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흐름을 관찰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윤리단길은 도시재생사업의 영향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요소가 모두 관찰되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으로 상업, 관광이 활성화된 서학동 예술마을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서학동 예술마을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좋은 연구이다.

- 2) 전주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지역 갈등, 황인욱, 한국지역사회학회, 2016

해당 연구는 1999년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이후 나타난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

에서 관찰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어떻게 주민 간의 갈등을 낳았는지 서술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지방 도시,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는데 용이하지만, 서학동 예술마을의 형성을 촉발한 2010년대 한옥마을의 상업화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3)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 연구, 김상현, 이한나, 도시공학과, 2016
서

해당 연구는 서울 성수동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업의 진입이라 주장하며, 전주 한옥마을과 마찬가지로 상업의 발달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4) 저층주거지에서 미래유산을 통한 마을재생 연구- 서학동 미래유산을 통한 마을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김준영, 대한건축학회, 2021

해당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시 저층 주거지는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사회문화적 프로그램과 역사를 바탕으로 시설 조성 및 위치 선정을 고려한 서울시의 도시 재생 사례를 들었다. 해당 논문은 도시재생 시 고려해야 할 점과 효과적인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5)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생태계에 관한 연구, 김현수,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4

해당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소속감과 정체성, 장소성을 고려하고, 마을을 이루는 생태계의 모든 요소를 고루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서학동 예술마을이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할 만하다.

3. 연구 방법

1) 연구질문

본격적으로 현장 연구에 들어가기 전, 크게 세운 질문은 다음 3가지이다.

- ① 전주한옥마을 상업화가 서학동예술마을 예술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② 서학동 예술마을이 형성된 과정은 어떠한가?
- ③ 도시재생 사업 후, 예술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연구 목표인 서학동 예술마을의 형성과, 현재의 서학동 예술마을이 되기까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시간순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지 소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서학 3길 인근에 위치한 서학동 예술마을은 북쪽으로는 전주천 너머 한옥마을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전주 교대에 인접하여 있는 작은 마을이다. 전주한옥마을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반면, 서학동 예술마을은 그에 비해 적은 유동 인구가 드나들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즐기는 곳이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예술가들의 이주와 함께 옛 골목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서학동 예술마을은 2010년부터 이주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유입된 다양한 예술인 약 40명이 마을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학동 예술마을이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지속된 예술인,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소통하는 모습과 아름답게 꾸며진 마을 경관은 서학동 예술마을의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되었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예술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새 숨을 쉬는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172억 규모의 지원을 받아 노후 주거지 정비, 예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완료하였다.

즉, 서학동 예술마을은 예술가 이주 이전 시기, 2010년 한옥마을의 상업화 이후 예술가들의 서학동 이주가 시작되던 시기, 2017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주거지 정비, 예술 테마거리 조성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분위기 있는 마을 경관이 특징인 곳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서학동 예술마을은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주시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전주 소재 호텔과의 협업으로 마을 투어를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촬영지로도 유명해지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 장소가 되었다.

3) 방법론 소개

- 1) 한옥 마을 상업화와 다른 지역의 상업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더 찾아서 분석한다. 또한 서학동예술마을의 도시재생 관련 논문과 마을 재생에 대한 연구 결과도 찾아본다.
- 2)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 결과를 추출하고,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비교 분석해 본다.
- 3) 서학동예술마을의 상업화, 도시재생 관련 공식 자료와 기사를 수집하여 예술마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4) 면담 전, 서학동예술마을 관련 다큐 영상을 시청하고 질문지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다.
- 5) 서학동예술마을 예술인들과의 면담을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당시 상황에 따라 면담 시간을 조정한다.

6) 면담 후, 모은 수집자료는 한글 파일로 만들어 본 연구에 사용할 내용을 정리한다.

본 연구는 서학동예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전 2019년 05년 12일 KBS에서 방영된 <다큐 3일>의 서학동 예술마을 편을 시청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수많은 예술 관련 서적 등을 보관하고 있는 서학동 도서관과 같은 서학동의 대표 공공시설에 방문하였으며,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주최하는 사진 전시 등을 관람하였다.

면담 요청에 응한 연구 참여자는 이○○, 김○○부부, 이□□씨, 이△△씨, 은○○씨로 구성되었다. 이○○, 김○○부부는 서학동으로의 초기 이주 예술가 부부로, 각자 음악가, 소설가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은 게스트하우스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씨는 서학동 예술마을의 초대 총장을 맡아 서학동 예술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입안서 제출 등 현재의 서학동 예술마을 조성에 있어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이○○씨와 친한 사이로, 서학동 초기 이주 예술가이다. 현재 자신의 집 1층을 카페로 운영 중이며, 카페 내부 공간에 자신의 화방을 설치하여 현재까지도 미술 활동, 작품 전시를 활발히 하고 있는 예술가이다. 이△△씨는 서학동 예술마을의 사진미술관에서 대표로 재직하며,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녀는 서학동 예술마을의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인 사진미술관에 자리잡게 되었다. 은○○씨는 서학동 예술마을에 본인의 소품샵을 차린 지 5개월 차의 신규 이주민이다.

면담은 모두 면담자의 작업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배포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약 1시간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연구 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질문 1의 질문으로는 서학동 예술마을에 정착한 배경, 연구 질문 2의 질문으로는 예술 마을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그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연구 질문 3의 질문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과정과 긍정적이거나 아쉬운 점에 대해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4. 연구 내용의 분석

1) 한옥마을 상업화가 서학동예술마을 예술인들에게 미친 영향

“먼저, 여기 서학동 예술마을이 생겨난 건 젠트리피케이션 아시죠. 젠트리피케이션. 한창 저기 한옥마을이 관광화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한창 시끄러웠어요. 건물 월세도 올라가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뭐, 상업용 시설로 써야 하니깐. 이제 거기서 나온 주민들 중에 예술가들. 몇 분 계세요, 지금도. 아무튼 그분들이 한옥마을 근처에 가격도 싸고, 뭐 동네도 보시다시피 여전히 조용해요. 고즈넉하다고 해야하나?”

-이△△, 인터뷰 中

“2007, 8, 9년대 때는 그때 한옥마을이 막 개발이 되는 상황이라 관광객들이 문을 열고 일반인 집을 들어온다거나....(생략).... 여기(서학동)가 좀 고즈넉하고, 적막하니까. 거의 뭐 이렇게 조용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노인들만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이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거처하면서 우리 작업을 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다른 데보다 좀 땅값도 좀 저렴

하고. 그리고 한옥마을하고 연계돼 있고 남부시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지리적 여건도 상당히 좋고.”

-이○○, 인터뷰 中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하며,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본격적으로 한옥마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상업시설의 증가율이 8.6%로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22.4%를 찍었다. 한옥마을이 관광업을 기반으로 상업화되면서, 기존의 예술인들은 관광객과의 마찰, 높아진 임대료 등을 이유로 한옥마을에서 밀려났다. 그러한 가운데, 이○○, 김○○ 부부, 이□□는 서학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김○○ 부부는 외부 간섭 없이 음악과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어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이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용한 환경, 낮은 지대, 교통 및 지리적 조건이었다.

“우리는 취향 때문에 여기에 온 거지, 절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건 아니야.... 여기 집만 내가 10번을 넘게 고쳤어. 돈 때문에 이동하고, 어디서 쫓겨나서 더 싼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거였으면 내가 여기(집)를 수리하면서 살 이유가 없지. 수리가 돈은 더 많이 들어.”

-이□□, 인터뷰 中

다만, 상술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김○○ 부부는 직업적 환경을 위한 목적으로 서학동으로 오게 되었으며 이□□씨는 취향의 문제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즉, 예술인들은 한옥마을 상업화 현상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학동예술마을의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본고는 예술인들의 서학동 이주에 한옥마을 젠트리피케이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였다.

2) 서학동 예술마을이 형성된 과정

“우리 집을 이렇게 방문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좀...(생략)... 하나둘씩 이렇게 모여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이제 화가들, 그다음에 작가, 음악인, 그다음에 이제 공예가는 처음에는 많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예 쪽에 사람들이 좀 들어와있었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 있었었습니다.”

-이○○, 인터뷰 中

이○○, 김○○ 부부가 서학동에 이주하고 나서, 그들의 집을 방문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근처로 이주해오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예술마을의 초기, 예술인들은 6~7명 정도였으며, 지금은 40~50명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선생님은 그걸 사서 고쳐가지고 이렇게 전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 (생략)... 이것(벽)도 1972년도 타일 그대로예요. 여기(로비)도 원래 마당이었는데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이△△, 인터뷰 中

“저기 건너에 이○○ 선생이라고, 있어. 나랑 초창기에 같이 여기 들어온 친한 사람인데, 처음에 집을 샀는데 집 천장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같이 수리하고, 그랬지.”

-이□□, 인터뷰 中

예술가들의 거주와 관련해서, 예술가들은 기존의 집을 매입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여러 차례 수리 혹은 개조해가며 새로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새롭게 수리 및 개조함으로써, 새 보금자리에 대한 애정을 쏟아왔다.

“어디나 사람이 사는 데는 다 텃세가 있어요...(생략)...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막 뭔가를 해요. ○○공방,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예술가들이 오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재밌기도 하구나. 그리고 그 동네가 좀 예뻐지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런 호감도가 생기면서...”

-이△△, 인터뷰 中

예술가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며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할 무렵, 원주민들의 텃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술가 집단은 개의치 않고, 원주민들과 융화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모 작가는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주민 참여형 공방을 만들어 친목을 다졌으며,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벽화 등으로 아름다워진 동네 경관을 보고 원주민들의 호감도 또한 상승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서학동 예술마을은 기존의 주민과 예술가 집단이 서로 융화되어 함께하는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오래된 낡은 데는 벽화를 그린 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좀 하면서 같이 음악회라든지 이런 축제 계속 그런 걸 해봤거든요...(생략)...그것이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보여서 한번 뉴딜 사업에 재생사업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거의 이제 써서, 입안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인터뷰 中

예술인들의 진입으로 달라진 서학동의 모습에, 전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제안하였고, 이○○ 당시 총장은 입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약 150억 상당의 사업에 선정되었다.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2021년 총 4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취약시설 정비, 예술테마거리 조성 등 서학동의 외관을 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예술마을의 상업성을 높였다. 다만, 사업의 초기에는 이○○씨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나, 이후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보아 사업 진행 중 손을 놓은 것으로 보였다.

상술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면담자들은 도시재생의 부정적 측면을 토로하였다. 이○○씨는 ‘주차장 시설에 반영이 안된 것이 있고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는데 쓰임새가 없다.’고 하며, ‘다른 금액으로 꾸민 도서관도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도서관이라든지, 하다 못해 작가가 운영을 하고 참여를 해서 질을 높인다든지,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도 도시재생과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라며 공공서비스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다.

한편, 이△△ 대표는 ‘서학동의 도시재생 사업과 예술거리 조성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은 예술가 개인이 자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시에서의 지원은 행사 시기 일회성 지원이 대다수이며 지속적인 지원은 예술가에게 가는 것이 아닌, 도로 정비와 같은 사업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도로 정비와 주거지, 골목길 개선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야무야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예산이 잘 활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문제와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행정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꼭 한옥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위성이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근데 여기 마을의 정체성은 따로 있는데, 막 요구까지 해요....(생략) 무조건 한옥마을 중심으로 이 마을을 거기에 부속된 마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김○○, 인터뷰 중

서학동 예술마을 관광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학동 예술마을의 시 주최 행사 참여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도 잇따랐다. 김○○씨는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서학동 예술마을이 한옥마을의 위성 관광지 취급을 받고, 한옥마을의 행사를 지원해 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공공서비스 구축, 매력적인 공간 창출, 마을 관광화 사업, 주민역량강화’라는 큰 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나, 예술인들마다 상이한 반응을 보였고,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긍정하면서도, 사업의 진행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시와 주민의 소통 부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내용 1, 2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한옥마을 젠트리피케이션은 서학동 예술마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예술인들이 점차 서학동으로 모여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학동 예술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간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이 노후되었다고 해체, 재공사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쳐 현재까지도 사는 등,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애정을 쌓아왔다. 이는 집뿐만이 아닌, 마을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한옥마을 인근의 버려졌다시피 하던 마을에 자신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그로 인해 변화된 지금의 마을 모습은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다. 김○○씨는 그러한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글을 쓰고 읽는 등의 참여형 문화를 만들며 마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예술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서학동 예술마을의 공간이 단순히 한옥마을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터를 잡게 된, 한옥마을의 대안적 공간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시선, 즉 한옥마을에 부속된 위성 관광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옥마을과 서학동 예술마을은 전혀 다른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옥마을에서 이주했다고 말하는 여러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서학동으로 이주하게 된 요인으

로는 한옥마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이 있었지만, 이를 부정하고 한옥마을의 대안적 공간이라는 인식에 대한 반감이 작동한 것은 서학동 예술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3) 도시재생 사업 후 예술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앞으로의 변화

새롭게 서학동 예술마을에 자리 잡은 은○○씨는 서학동 예술마을이 상업에 그 목적을 두기 보다는 예술활동에 목적을 두었고 가게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서학동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아직 주민들과 활발한 교류가 없지만, 주민 간의 교류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협력 의사가 강했다. 이를 보았을 때, 서학동 예술마을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김○○ 소설가는 서학동 예술마을만의 긍정적인 점을 말했는데, ‘예술인들이 와서 나름 가꾸고 자기들 취향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참 예쁘네.’라며 서학동 예술마을에 오는 사람들의 인식과, 한옥마을과 달리 서학동 예술마을만의 새로운 소박한 문화를 강조했다. 그녀는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의 드라마 촬영지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이제 좀 걱정은 뭐냐면 그게 좋은 것이 보기에만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라며 외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보다는 서학동의 내부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전 총장은 ‘의미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뜻을 생산하는 것이 예술 활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학동 예술마을이 예술적인 공간으로서 의미있는 공간이 되려면 예술인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은 ‘예술이 자기가 사는 지역,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은○○씨는 공방마다 오픈하는 시간이 달라서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가게 및 공방의 오픈 시간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학동 예술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마을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결론 및 연구 기대효과

1) 한옥마을의 상업화로 인해 2010년부터 시작된 예술가들의 서학동으로의 이주는 여러 예술가들과 기존의 주민이 함께 거주하고 소통하며, 예술을 향유하는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그리고 예술인들 간의 협력 의사를 보았을 때, 서학동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도시재생 사업의 과정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공공 문화시설 구축, 예술테마거리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예술인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중 시와 주민의 소통 부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서학동예술마을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려면 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정부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서학동 예술마을은 여러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성공적인 예술마을 생성 사례로 평가받으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은 서학동 예술마을이 지속되려면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각자의 작품과 전시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과 함께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청주 윤리단길은 도시재생과 함께 새롭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예술인들의 협력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방법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참고할 만하다.

참고 문헌

1. 도시재생인가, 젠트리피케이션인가?: 충청북도 청주시 윤리단길의 지역 변화를 중심으로 -김종성, 김 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4
2. 전주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지역 갈등- 황인옥, 한국지역사회학회, 2016
3.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 연구- 김상현, 이한나, 도시공학과, 2016
4. 저층주거지에서 미래유산을 통한 마을재생 연구- 서학동 미래유산을 통한 마을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김준영, 대한건축학회, 2021
5.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생태계에 관한 연구- 김현수,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4

자만 벽화마을 주민들의 삶과 도시 재생

6조: 구연진, 김영익, 이소원

1. 서론

자만벽화마을은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과 오목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산동네에 조성된 벽화 마을이다. 자만벽화마을은 2012년에 벽화가 그려진 것을 시작으로 전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알려져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자만벽화마을은 소강기에 접어들었으며 개선되지 않는 벽화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 공백의 여파,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각지 빈민촌 구제를 위해 조성이 남발된 벽화마을 자체에 대한 피로감과 부정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자만벽화마을을 통해 벽화마을 조성과 운영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민, 관광객, 운영진과 같은 벽화마을의 다양한 집단이 어떤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벽화마을을 통한 공간 재생사업의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만벽화마을을 본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벽화마을은 공공예술을 통한 지역 도시재생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생기는 관광객과 주민 간 갈등과 지역과의 상호작용처럼 다층적인 관계맺음, 의미부여와 같은 문화인류학적으로 중요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장이다. 그 중 자만벽화마을은 특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타 벽화마을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벽화마을이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의 기업이나 정부가 조성한 마을과 달리 그 원동력과 활동 면에서 다른 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도시재생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만벽화마을은 조성 후 올해 기준 13년의 세월이 흐르며 관광화된 마을의 과정을 엿보기 부족함이 없다. 다른 벽화마을 및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장은 대부분 관광화가 진행 중인 격동의 현장이 가시화되고 언론에 소개되는 것을 생각해볼 때, 자만벽화마을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그 이후를 주목하면서, 안정적인 관찰과 과정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낙후된 원도심이나 골목길을 예술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벽화마을이다. 벽화마을은 노후화된 마을의 외벽에 예술적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이 있으며, 이후 자치단체들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벽화마을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관광을 통해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장소의 상업화,

공간의 피로화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벽화마을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김주영, 2015)에서는 벽화마을의 관광과 상업에 초점을 두던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였다. 위 연구는 수만골 벽화마을의 세 축인 주민, 벽화마을 기획자, 이주한 예술가를 분석하여 기존의 분석에서 소외된 부분을 도출하였다. 주민들은 마을을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치부하며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 벽화마을 기획자는 마을의 상업시설을 더 확대하고 싶어 하나 정부의 지원이 없음에 불만을 느낀다. 벽화마을로 이주한 예술가의 경우 본인들을 빈민층으로 정체화하면서 빈곤을 낭만화하고 상업시설 확대에 불만을 품는다. 이렇게 연구는 세 집단의 서로 다른 관점을 조명하면서, 그들은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빈곤을 대상화시키고 있음을 꼬집는다. 벽화마을을 관광지, 상업지구로만 접근하는 것은 내부의 불평등한 계층구조를 은폐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위 논문은 벽화마을의 상업성이 아닌 주민 생활과 복지차원에 대한 더 실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 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김예림 and 손용훈, 2017)에 따르면, 벽화마을의 관광객, 이주민, 원주민 간의 관점 차이는 공간의 지속가능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낳는다. 원주민은 마을을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과거에 투영하며 벽화 조성에 무기력하다. 이주민은 마을을 옛 정취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동네로 표현하며, 마을의 관리 필요성을 이야기하나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등 수동적이다. 관광객은 조성된 벽화와 더불어, 마을의 형태와 능선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나 촬영과 같은 소비에만 그치며 마을 정비만큼 보존을 강조하며 관찰자적 태도를 보인다.⁶⁾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논문은 획일적인 벽화 조성이 아닌 “프로슈밍 경관 만들기”와 같이 향유자들의 수요를 고려하는 참여적인 활동의 필요성과, 외적 경관의 정비에만 그치지 않는 각 향유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문화적, 환경적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발판삼아 그들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즉 마을의 경제적, 소비적 가치에만 몰두하기보다 문화적 주민 생활과 복지를 놓치지 말고 연구에서 권력관계와 낭만화, 타자화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벽화마을에 있어서 있어 일방적, 하향식 운영보다 현장의 행위자들을 두루 고려한 참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방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천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 질문

자만벽화마을은 전주의 대표적인 벽화마을로, 이를 조사하며 벽화마을로 대표되는 도시재생과 공공예술, 지역의 관광지화 현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자만벽화마을의 연구는 벽화마을의 조성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주민과 관광객 등 자만벽화마을의 행위자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6) 김예림 and 손용훈.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5, no. 1 (2017): 111~113

7) 같은 글, 114~115

2. 연구지 소개

자만 벽화마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의 언덕 위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때는 한국전쟁 초 피난민들이 달동네를 형성하면서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이어져 왔던 이 마을은, 2012년 전주시의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과 담장에 벽화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꽃, 동화, 풍경 등 다양한 주제의 벽화들이 설치되면서 시각적 매력이 더해졌고, 인근의 전주 한옥마을과의 접근성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0년부터 전주시가 주관한 ‘전주벽화 트리엔날레’는 자만마을의 경관을 예술적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이 트리엔날레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전국 단위의 공모를 통해 회화, 일러스트, 그래피티, 조형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정하여 마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벽화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지정된 벽면에 주제에 맞는 창작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창작지원금을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예술가 개인의 창작 활동과 지역 이미지 개선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자만벽화마을의 변화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며,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선 지역 공동체의 가치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 참여보다는 결과 중심의 작품 설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예술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외부 방문객과의 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예술가, 주민, 관광객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자만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예술기반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만 벽화마을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주목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벽화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려는 방문객들의 활동이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벽화마을 관련 콘텐츠가 다수 생산되며, 전주시의 관광 자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미디어 확산은 마을의 인지도 제고뿐 아니라,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게스트하우스, 소규모 상점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만 벽화마을은 예술을 매개로 “골목길” “생동감 있는 담장으로 재생”시키며 도시 공간을 재해석하고, 관광자원으로 재구성하며, 지역 경제 및 문화적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한옥마을, 전동성당, 경기전 등 전주의 대표 관광지들과의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루트로 개발”하는 등 도시 전체의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⁸⁾ 예술과 관광, 지역 정체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프로젝트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방법론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여행 계획 어플리케이션 D의 자만 벽화 마을 후기 댓글들, 검색량 조회 사이트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한 자만벽화마을 검색 통계를 바탕으로 자만벽화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8) 뉴스1, “전주 자만마을 담장 벽화사업 각광,” 뉴스1 전북, 2013년 3월 12일.

이후 2025년 5월 11일, 20일 두 차례의 마을 방문을 통한 주민과 상업시설 운영자, 관광객을 대상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더욱 상세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광객들의 관점을 보충하기 위해 자만벽화마을이 포함된 투어를 체험해보고, 해당 투어의 가이드와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심층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전조사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전주자만벽화마을’, ‘자만벽화마을’, ‘자만벽화마을에서’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습득한 여행정보글, 일반인들의 후기들에서 무슨 태그를 사용했는지, 무슨 사진을 첨부했는지, 사진의 위치와 구도는 어떠한지, 줄글의 내용과 어투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자만벽화마을’을 검색어로 하여 나타난 네이버 블로그들은 전주자만벽화마을에 대한 여행 정보 중심의 추천글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정보를 취사하여 제공하는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말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는지 등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여행계획 어플리케이션 D의 전주 자만 벽화마을 항목의 댓글 후기들은 작성 연월, 첨부 사진, 언급한 벽화, 묘사한 장점과 단점, 여행 목적, 언급한 이전 벽화마을 경험의 유무 등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내용과 분석

먼저,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경로당으로 향했다. 경로당은 자만벽화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한 노인들을 조사하기 적합하다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경로당에는 여러 여성노인들이 있었는데 누워서 서로 대화하고 있거나(오후 4시 경 방문), 자고 있어(오후 1시 경)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벽화마을에 대한 인식을 묻자 카페에 물어보라며(“[A씨의 가게]에 가서 상의를 하면 되지”) 대답을 꺼려했으나, 여러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벽화마을이 조성되며 불편한 점이 있냐고 묻자 전혀 어려운 점이 없으며, 마을에 활기가 생겨 좋다고 대답하였다(“애들 와서 구경 싹 하고 가고 좋다고 하는 양반도 있고 이런 데. 또 그림을 나간 사람도 있고 아냐. 그런 식으로 와갖고 발전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냐. 발전 좀 시켜주면 좋지.”). 다만 벽화가 낡아 사람들 보게 하기 부끄럽다고 말을 꺼내며(“여기 그림이 늙어가지고, 오래되어갖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쪽팔리다 그래”, “또 막 부서진 데도 있고 막 봐봐요.”), 벽화의 개선을 바랐다(“대학교에 벽화 그리는 사람 있으면 벽화마을 그림 좀 그려주라 그려”). 다른 벽화마을과도 비교하였으며(“어디 벽화마을에 갔더니 참 볼 것이 있더라, 어디 어디 가면 참 괜찮더라 (한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여기) 벽화는 좀, 그림이 좀 그래.”) 시장 등 정부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주민들이 말하면 절대 안 들어. 안 해줘. 어떤 놈이 해주겠어. 시장도 말도 안 듣는데.”). 관광객들이 시끄럽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느냐는 말에 부정하지 않았으나(“그런 거 먹으면 하나씩 놓고 가.”) 이를 치우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덧붙였다(“이제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해요.”)

이후 경로당 외부에도 몇몇의 주민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열정적으로 벽화마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벽화마을이 조성되고 자정까지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많아져 삶에 질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어 경로당 노인들과 거리의 노인이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벽화마을들의 주민들은 대체로 벽화마을 조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데 소극적이고 무기력하였으며, 주민으로서의 새로운 관점 없이 A씨의 의견을 답습한 수준이었다. 이는 A씨를 비롯한 지역 주체와 동일한 위치로서 같은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기보다는 마을 운영에 뒤쳐진 노년 인구로서 의견 표출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인터뷰 당시 비슷한 다른 노인들과 달리 경로당 외부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는 것은 특기할 점이다.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 운영자의 경우 2명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본래 그들을 관광지화된 벽화마을의 상업성에 이끌린, 타 연구에서 이주민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으며, 오히려 그들은 벽화마을 사업의 운영자이자 원주민에 가까운 위치였다.

A: “원래 이 동네 사람 한 명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다 기획안 낼 때 사람 한 명 보기 힘든 마을이고 이렇게 존재하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마을이다”

(...)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적거나 가난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뭐냐하면 인프라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금은 바닥이 메꿔졌지만, 십 몇 년 전에는 까진 상태로 6년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까진 상태로 하수구 공사하고 그냥 까진 상태로 6년 놔두고 막 그랬었어요.”

(...) “이제 저희, 제가 이제 마흔여덟인데 저 어릴 때는 살기 되게 좋았어요. 여기가 왜, 사람이 사니까. 사람이 살면 어르신들이 산 밑에 공원도 만들어주고 막 하거든요. 자기 집 앞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살기 좋아요. 사람이 떠나면 이렇게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Q: “근데 왜 떠난 거예요?”

A: “아까 재개발을, 재개발 간다고 하니까. 재개발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방치 상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 이렇게 달동네들의 문제가 아사자. 네. 그다음에 이제 고독사. 고독사가 아사자하고 자살자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복이 됐어요. 저희가 1년에 한 4건에서 2건이 기본. (...) 또 그 연도가 좀 심했어요. 자살자가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살아계셔서 가지고. 살면 더 큰일 나요. 이게 보험이 안 돼요. 자살했다가 살아나면 그게 다 본인 책임이에요.”

카페 주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만벽화마을에서 자란 주민으로, 2012년도 마을을 일으키기 위해서 벽화를 손수 그리고 카페를 차린 것이 그였다. A씨의 인터뷰에서 옛날 마을은 나름의 활기를 띠고 있었으나 재개발 소문이 허황됨이 밝혀지며 많은 인구가 유실되어 극심한 달동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거 마을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하수구 공사가 방치된 상태였던 등 그 심각성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이것이 행정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이며, 젊은 인구가 없이는 마을은 계속 소외되고 방치된다는 신념으로 그와 젊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을 되살리려 노력했다고 한다. 이 생각을 당시의 차관은 동감해주어, 지원금과 여러 인프라를 제공해주었다. 이 노력은 마을이 성공적으로 관광화되고, 예술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며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A: “시민단체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 마을을 폐쇄당하고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 보지 못하면 (...) 네, 가난한 사람 보고 가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재생이나 이 복지가 (...) 가난한 사람이 돈 벌거나 삶이 나아지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구가 본질이 돼버린 거죠.

A: “뭉툰그려갖고 ‘돈은 악이다’해서 그 사람(시민단체)들이 지금 정책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내권도 다 망하는 이유가, 수백억 썼잖아요. (...) 수 백 억을 쓰는데 왜 망해요? (...) 왜냐하면 돈을 벌면 안 되는 구조를 그 사람들(시민단체)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A: “이제 (마을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예전에는 저희 카페 중에 한 90%가 매달 돈을 내서, 벽화 그리고, 예술가 지원해 주고. 또 원래 이제 1층은 시민들이 잠도 자고 숙소도 되고 창업을 했었는데, 아까처럼 시민단체들이 좀 악마화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 메인 방송에 ‘100명이 쫓겨났다’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규제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돌아다니시면은 100명이 산 흔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억울하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A씨는 이후 지원금은 끊겼으며, 전주시는 이 마을과 자신의 여러 도시재생 아이디어들을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공을 가로챘다고 말하였다. 특히 마을의 상업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벽화마을의 조성으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야 했으며 비판하고 자본을 악으로 보지만 A씨는 애초에 마을의 인구도 100명이 안 된다고 해명했으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가난을 가난으로 머물게 하는 주객전도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A씨의 발언으로 하여금 그가 이곳의 주민이자 운영자로서 벽화마을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공로를 정부가 인정해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은 지역민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외부자인 정부와 시민단체에 반감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지역의 거주민이자 특히 벽화마을 사업을 시작한 장본인이기에, 정부와 시민단체에 대해서 편향적일 수 있음을 유념하였다.

또 다른 카페 주인 B씨는 역시 벽화마을의 주민이자 통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벽화마을이 조성된 지 1년 후인 2014년, 생업을 접고 마을에 카페를 차렸다. B씨 또한 벽화마을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되었으며 이후 정부에서 LED 조명과 포장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해주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벽화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이곳의 게스트하우스들은 인터넷 예약으로 문전성시일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벽화마을 조성으로 이주민이 100여명에 달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공유하였다. B씨는 현재 벽화마을에는 8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조성 당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몇몇이 물러가긴 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고 말하였다. 벽화마을 조성 당시의 시장이 물러나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벽화를 꾸미게 하는 트리엔날레를 개최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끊겼고, 벽화는 주민들이 자비로 개선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때는 관광객이 없어 사정이 어려웠으며, 해마다 열리던 많은 행사도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관광으로 얻는 수입의 경우 벽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많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매우 적어 생계는 다른 방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이처럼 카페 주인 A씨와 B씨 모두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들 모두 자만벽화마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자 벽화마을 조성과 운영에 함께 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A씨에게서는 자만벽화마을의 성립과 동기, 운영방향, 행정적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으며, B씨의 경우 그에 대한 관찰자적 입장과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과 운영자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관광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서 만날 수 있었던 몇몇의 관광객과 인터넷의 반응들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현장조사에서 관광객들은 주로 외국인이거나, 전주 또는 근방 전북 지역에서 산책을 온 사람들이었다. ‘구글 트렌드’(<https://trends.google.co.kr/trends/>)

와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을 통해 검색어 ‘전주 자만벽화마을’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있었다. 구글 검색량은 일부 날짜(21년 10월(상대적 관심도 87%), 22년 6월과(100%: 최고치) 11월(62%), 23년 3월(54%), 24년 2월(58%)과 4월(47%))를 제외하면 ‘검색어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가 0에 수렴할 정도이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검색 장소는 대부분 전라북도였으며, 이후 광주광역시(12%), 부산(5%), 서울(3%), 경기도(1%)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2016년과 2017년 초 구간에 가장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며 연령별로 40대, 50대, 30대와 그 이하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29.9%)보다 여성(70.1%)이 높은 관심을 가졌으나 2020년 초에 검색량이 감소하였다. 이후 블로그, 인스타그램 게시물, 여행계획 어플리케이션 D의 “자만벽화마을”의 후기들을 통해 더욱 많은 반응을 수집할 수 있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은 벽화와외의 상호작용이나 유명 벽화, 카페의 경관과 음식들에 대한 사진이 주를 이루었으며, 블로그의 경우 자만벽화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소개하면서 사진 촬영, 산책과 같은 목적에 알맞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여행계획 어플리케이션 D 유저들의 경우 ‘아기자기’, ‘골목길’, ‘조용함’과 같은 분위기를 중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만벽화마을에 대해서 ‘동화같은 분위기’, ‘따뜻함’, ‘아기자기’와 같은 긍정적인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다.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 추억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벽화를 인증하는 사진들이 많았으며, 그밖에도 골목의 건축구조와 어울리는 벽화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더운 날씨지만 그늘이 마땅히 없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마을이 상당히 가파르다’, ‘벽화가 잘 들어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하였다. 또한 여행 어플리케이션 D의 반응들을 통해, ‘벽화가 바랬다’, ‘카페가 문 연 곳이 없다’, ‘폐가가 많다’ 등의 정비와 관리의 부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벽화마을의 관광객들은 자만벽화마을을 일상과 분리된 힐링과 이색 체험의 공간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부족한 주차 공간, 가파른 동네, 협소한 골목길 같은 생활공간의 요소였던 것을 관광지 차원의 평가 대상으로 전환되게 만든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자만벽화마을의 특색과, 이를 살린 벽화를 좋아하였다.

관광객에 대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자만벽화마을이 포함된 한옥마을 투어의 관광가이드를 인터뷰하였다. 이 문화해설사 C씨는 올해로 6년째 가이드투어를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주셨다. 자만벽화마을이 포함된 해당 투어는 본래 인기관광지 외곽을 돌아 인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해설로 개선시키려고 하며, 최근 드라마가 투어의 테마와 맞아떨어져 관심도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는 해당 투어와 자만 벽화마을을 더욱 상호작용할 수 있게 자만 벽화마을에 연계된 벽화가 그려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었다. 또한 자만벽화마을은 6.25 때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인 만큼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벽화는 부적절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러한 현장조사로 인해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자만 벽화마을은 벽화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중심의 삶의 공간에서 관광지로의 전환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장 조사 진행 전, 자만 벽화마을이 관광객의 카메라를 위한 전시 공간 혹은 포토존으로 소비되며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했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 결과, 다수의 주민들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마을의 활기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을 위한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벽화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6. 결론 및 기대효과

자만 벽화마을이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일상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의 유입으로 마을 골목은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벽화 보존 활동이나 환경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가구는 간이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부수입을 얻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면에서 주민 간 갈등과 외부 기관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자만 벽화마을은 조성 초기 이후 별다른 유지관리 계획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며, 벽화가 노후되거나 훼손되더라도 복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마을의 미관은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자만벽화마을은 조성 초기의 청년 주민들이 견인하고 있는 만큼 이전의 팬데믹과 같은 큰 경제위기나 세대 교체를 통해 언제든 소멸할 수 있는 위험을 앓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벽화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알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A씨와 B씨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지만, 정작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인터뷰가 가능하였다면 벽화마을 주민들에게서 확인하지 못한 그들의 주장을 통해 나름의 합리성과 입체적인 이해관계를 견인하여 자만벽화마을 의제에 대한 더욱 심도 높은 이해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마을의 고령 여성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벽화마을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마을이 예상보다 높은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강렬한 원동력이 지니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관광객의 수요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특히 관광객들의 소음이 심한 공간은 거주지역에서 약간이라도 분리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없이 자만벽화마을의 기초적인 정비 보수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담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자만벽화마을의 자체수익으로 하여금, 그들의 색채를 간직하며 마을은 축제를 개최하고, 벽화를 발전시키고,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등 더 고차원적으로 활용할 여유가 생김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 시설, 예술 공간, 휴식 공간 등을 늘려 더 많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을 꾀해 자만벽화마을이 세대를 넘은 지속가능성을 얻기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규 외 2명, 2021, 도시재생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벽화마을 활성화방안: 안동 신세동 벽화
김예림 and 손용훈, 2017,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마을을 중심으로

김주영, 2015,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달동네 빈곤의 재현에 관한 연구
백아연, 2021, 전라북도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미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정하나, 2014, 벽화마을 사업이 거주민의 지역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뉴스1, “전주 자만마을 담장 벽화사업 각광,” 뉴스1 전북, 2013년 3월 12일,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today%205-y&q=%2Fg%2F11f120k3pb&hl=ko>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N_46d1354ed79023d530fe3554d623ba26

<https://blackkiwi.net/service/keyword-analysis?keyword=자만벽화마을&platform=naver>

<https://triple.guide/attractions/465da00c-b809-4b86-8285-b7452c53433c>

<https://blog.naver.com/gftravel/223816624794>

<https://blog.naver.com/zinizio/223236128615>